

2021-CR-05

작은연구 좋은서울 21-10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청소년의 시각을 중심으로

김우희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청소년의 시각을 중심으로**



연구책임

김우희 하버드대학교

연구진

우정음 서울국제고등학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01 연구 배경	1
1_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1
2_정부의 대응 및 한계	2
3_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필요한 이유	3
02 연구 개요	5
1_연구 목적	5
2_연구 내용	5
3_연구 방법	7
03 교육격차 관련 연구 동향과 코로나19 정책 대응	9
1_선행연구 검토	9
1) 교육격차의 개념	9
2) 코로나19 시기 이전의 교육격차 연구 동향	10
3) 코로나19 시기 교육격차 연구들의 주요 결과	11
2_서울시 교육정책 현황	15
1) 블렌디드 러닝의 내실화	15
2)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	16
3) 서울런	17
04 코로나19 시기의 교육격차 현황과 청소년의 인식	20
1_조사 개요	20
1) 인터뷰 개요 및 참여 대상	20
2) 인터뷰 질문내용	25

2_교사 인터뷰 결과 및 합의	32
1) 코로나19 시기 교사들의 학교 내 경험	32
2)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관련 교사들의 인식	32
3)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제언	34
3_청소년 인터뷰 결과 및 합의	35
1) 학교에서의 경험 변화	35
2) 비교과 활동 방식의 변화	41
3) 대인관계의 변화	42
4)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의 심화	43
5) 기타	46
05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	47
1_연구 결과들의 요약과 시사점	47
2_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및 합의	48
3_정책 제언	50
1) 교육청의 지원정책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개선	50
2) 학생들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 구축	52
3) 교육비 지원 개선	54
4)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생 중심의 다양한 수업 콘텐츠 및 온·오프라인 교수방식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56
5)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상담	57
6)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기조로 다양한 수업방식 및 과목을 통해 배움의 과정 내실화	59
7) 학생 자치, 동아리 등 수업 외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접근성 확보	61
8)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담론 및 구조의 방향 고민	63
06 결론	65
참고문헌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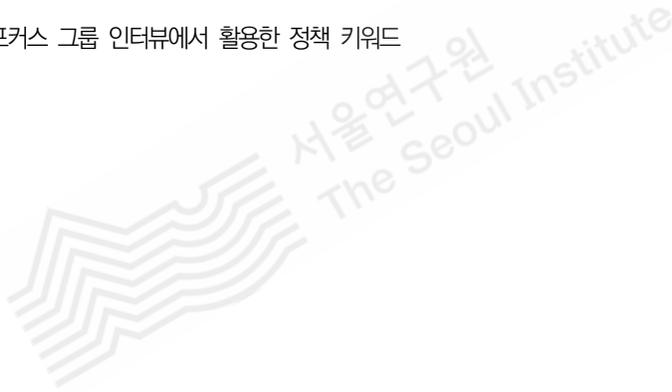
표 목차

[표 4-1] 교사 인터뷰 참여자 정보	21
[표 4-2] 학생 인터뷰 참여자 정보	24



그림 목차

[그림 2-1] 연구 내용	6
[그림 4-1] 학생 인터뷰 참여자 모집을 위한 인스타그램 광고	22
[그림 4-2] 학생 인터뷰 참여자의 사교육 참여 시간 분포	23
[그림 4-3] 학생 인터뷰 참여자의 소득분위 분포	23
[그림 4-4] 학생 인터뷰 참여자의 전자기기 사용유형 분포	23
[그림 4-5]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활용한 정책 키워드	31



01. 연구 배경

1_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코로나19는 삶의 방식을 크게 바꿔놓았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전염병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는 단절된 채 서로 거리를 두어야 했다.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선생님들과 만나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방과 후에 동아리 활동하는 기존의 학교 교육 경험은 큰 변화를 맞았다. 교사들과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고, 마스크 너머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재난은 모두의 경험을 바꾸어놓았지만, 평등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학교가 문을 닫는 동안, 학생들은 기존 사회의 불평등 속에 내던져졌다. 일부 학생들은 고액 과외를 받아 가며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을 사교육에 투자한 반면, 다른 학생들은 학교에서 기기를 대여받아 수업을 들었다. 온라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에서 본인의 기기로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함께 사는 좁은 방에서 공유기기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친구들 사이 수업 집중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집에 먹을 것이 없어 점심을 굶는 학생, 가정폭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청소년 쉼터 수용 인원이 줄어들며 갈 곳이 없어진 청소년들도 있었다(김혜리, 2021).

학교의 역할이 축소되고 학생들이 경험하는 불평등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교육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언론 설문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격차가 커졌다는 응답률이 60~80%대로 높게 나타났다(남궁민, 2021; 신성현, 2021). 교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79%가 코로나19 이후 학생 간 학습격차가 매우 커졌거나, 커졌다고 응답했다(김경민·김지아, 2021). 온라인 수업으로 부모의 학력·경제력이 학생 교육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생각하는 응답률도 62%를 보였으며, 자녀의 온라인 수업을 지켜보거나 지도해준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가계 소득에 따라 차이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유선, 2020; 오창민, 2020).

수많은 학생이 코로나19 속 불평등을 겪으며 취약한 위치에서 버터내는 동안, 한국의 교육 체제는 입시를 위한 질주를 계속했다(정용주 외, 2020). 개학하고, 모의고사를 치르고, 수능을 봤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 지침과 학사 일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 와중 소외된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목소리는 잊혔다. 심각해지는 교육격차를 우려하는 책과 논문들이 잇달아 출간되는 지금,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시각에 초점을 맞춰 코로나19 시기 심화되는 교육격차를 담아낸다.

코로나19가 바꾼 교육의 모습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그리는 이들도 있다. IT 기술의 접목을 통한 교육 혁신을 이야기한다. 미래 교육을 상상하기에 앞서, 앞으로 교육은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앞으로의 ‘미래 교육’이 진정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될 수 있을까? 모든 학생이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가정 환경 등에 제한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교육 기회와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에 대한 탐구와 고민은 결국, 모두를 위한 교육 정의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코로나19 시대의 교육을 돌아보며 청소년들은 더 정의로운 교육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인디고서원, 2021). 본 연구 또한 현존하는 교육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의로운 교육에 대한 고찰 속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코로나19 시기 교육격차와 이를 야기하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_정부의 대응 및 한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2020년 2월, 교육부에서는 개학을 연기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개학 연기는 3차례 계속되었고, 5월부터 고3 온라인 수업을 시작으로 순차적 온라인 수업이 시행되었다. 2021년 전면등교가 시행될 때까지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고등학생들은 격주 등교를 유지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한 수업을 이어갔다. 온라인 수업을 위해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학생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에 심각해진 교육격차는 기기 보급으로만 해결되지 않았다. 가정환경 등에 따라 원격 수업 집중도 및 학습 지도 여부의 차이가 생겼다.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원격 수업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학

습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학습관리와 지원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뒤처졌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복지 강화 및 원격 수업 개선 등을 중심으로 여러 교육격차 관련 정책안을 내놓았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0년 8월 블렌디드 러닝 내실화 지원과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교육 관련 단체 등은 일시적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김지은, 2021; 박근희, 2020), 교육격차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진단 없이 시행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신소영, 2021). 무엇보다, 코로나19 관련 교육정책 및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는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정용주 외, 2020). 학생들이 교육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는 미명 하에 학생들의 의견은 수렴되지 못했다.

3_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 포털사이트에 ‘청소년 운동가’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곧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운동가’의 개념이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청소년 운동가’는 아니지만, 청소년도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무엇보다 그 목소리가 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대한민국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일까?

이 연구는 가장 기초적이고 단순한 질문에 기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고 있는가?’ 헌법 제1조 제2항에서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에 포함되는 청소년 또한 당연히 주권을 가지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동안 청소년의 권리는 유독 주목받지 못했다. 청소년은 줄곧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모종의 이유로 암묵적인 차별을 당하곤 한다. 성별이나 개인의 성적 취향이 차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듯, 나이 또한 그렇다. 그러나 대한민국 청소년은 아직 발언권의 부재부터 사회적 영향력의 축소까지, 많은 권리를 상실당한다.

사회 전반에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 간단하다. 그들의 독특한 관점과 경험, 시각은 때때로 문제 상황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청소년 당사자는 곧 경험자이기에,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이유는 충분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팬데믹 속 학습권에 대한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에 집중한다. 단순히 그들의 경험과 생각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의견까지 수렴해본다. 대면에서 비대면으로의 교육 전환을 최근방에서 직접 경험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원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고안해보는 것이다.



02. 연구 개요

1_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사회참여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교육격차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 1) 코로나19 시기의 심화되는 교육격차를 청소년들이 어떻게 경험하는지 고찰
- 2) 교육격차를 야기하는 사회적 차별 및 불평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조사
- 3) 코로나19 시기 교육격차에 대한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분석하고, 청소년의 시각에서 보완책 제시

위 목표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는 코로나19 시기 심화되는 교육격차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험을 담아내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 보완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교육 연구 및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웠던 청소년의 목소리에 주목하여 코로나19 시기 심화되는 교육격차 및 관련 정책 보완책을 고찰할 것이다.

2_연구 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심화되는 학력 격차에 대한 현황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을 조사했다. 선행연구 조사에서는 코로나19 이전의 교육격차에 관한 연구를 살피고,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에 관한 최근의 연구 동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관련 정책 현황을 조사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격차와 이를 야기하는 사회적 불평등 및 차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및 경험을 조사하였다. 먼저 교육 현장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여 청소년 당사자들의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문맥화, 의미화하기 위해 서울시 내 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사 및 교감 선생님 3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시에 거주하며 서울시 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2명을 인터뷰하였다. 반구조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험과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세 번째, 청소년의 시각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 심화 해소를 위한 정책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두 번째 단계에서 수집한 청소년 당사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활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인터뷰 참여자 중 희망자 6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1회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관련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을 나누었다. 개별 반구조화 심층 인터뷰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이 느끼는 현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추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담은 정책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격차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토대로 교육격차 없는 평등한 교육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및 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그림 2-1] 연구 내용

3_연구 방법

본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청소년을 연구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키며 함께 연구를 만들어가는 연구 방법론인 ‘청소년 사회참여 연구(Youth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 방법론은 “청소년들이 연구 대상(object)으로서가 아니라, 연구자로서 성인 연구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들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탐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참여 연구방식”이다(남채봉, 2013: 31). 청소년 사회참여 연구 방법론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가장 잘 이해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본다(Cahill, Quijada Cerecer & Bradley, 2010). 이러한 접근법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수동적이고 객체화된 연구 대상으로 주변화한 기존 연구방식을 넘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 문제를 직접 연구하도록 한다(Ginwright & James, 2002).

청소년 사회참여 연구는 기존 연구 및 사회 담론에서 소외된 목소리들을 반영하는 비판적 연구 방법론이며 연구를 통해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변혁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Cahill, Quijada Cerecer & Bradley, 2010). 이러한 비판적 토대를 바탕으로 연구를 통해 사회 정의에 기여한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Cammarota, 2017). 사회 정의를 위한 연구라는 지향점 아래 기존 청소년 사회참여 연구 사례들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교육 불평등을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Cammarota, 2017; Dolan, Christens & Lin, 2015; Mirra et al., 2013; Warren & Marciano, 2018). 이러한 과정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이 경험하는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사회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주체(agents of change)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Ginwright, 2008).

청소년 사회참여 연구 방법론은 청소년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를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도 진행하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연구와 실천을 통해 참여자들이 주체적으로 주변 사회에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이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교육격차를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함으로써 변화를 위한 작은 실천을 이어가 보려 한다. 청소년 사회참여 연구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는 교육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청년 연구자와 교육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 연구자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함께 연구 과정

을 이어가며 연구 대상 선정, 연구 방법론 선정, 연구 참여자 모집, 인터뷰 질문 작성, 인터뷰 진행, 데이터 분석 등 연구의 전 과정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청소년 연구자와 청년 연구자 간 평등한 논의를 통해 청소년의 생각이 존중받을 수 있는 연구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비판적 및 페미니스트 인류학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구 과정에는 연구자의 위치성에 따른 권력관계가 내포되어 있다(Davis & Craven, 2016). 이번 연구 과정에서도 청년-청소년, 고등학교 선배-후배라는 연구자들의 위치성이 영향을 끼쳤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지점에 대해 함께 성찰하는 후속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Kim & Woo, 2023, forthcoming).

본 청소년 사회참여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청소년들이 코로나19 시기의 심화되는 교육격차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 선행연구 조사, 정책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반구조화 심층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데이터 수집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03. 교육격차 관련 연구 동향과 코로나19 정책 대응

1_선행연구 검토

1) 교육격차의 개념

교육격차는 교육 기회, 과정, 결과에서의 격차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학자들마다 교육격차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놓고 있다(박주호·백종면, 2019). 김양분 외(2010: 13)은 교육격차를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성, 지역, 계층) 간에 나타나는 교육 결과의 차이와 그러한 교육 결과에 이르게 되는 과정(가정, 지역사회, 학교)의 차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박경호(2018: 161)은 교육격차를 “타고난 성별, 인종, 능력 등과 같은 유전적 요소와 가정, 지역사회 등과 같은 환경적 요소가 다른 학생이 학교 경험을 통해 드러낸 교육 결과의 차이 가운데 사회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계층, 인종 등과 관련이 있으면서 사회진출 후 받게 될 보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주목할 지점은 교육격차가 개인별 교육 결과에 따른 차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요소 및 사회 구조적 요소들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연결 지어 교육격차를 구조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박미희, 2020). 이상운(2010)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교육 소외 및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육 소외 또는 교육 불평등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는 교육격차, 예를 들어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평등 조치 시행으로 인한 교육의 차이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이상운, 2010). 여기서 교육 소외는 “신체적, 가정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교육 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현상”(이상운, 2010: 25)을 의미하며, 교육 불평등은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교육 기회, 과정, 결과에서의 불평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이상운, 2010; 이해영 외, 2004).

받는다(통계청, 2020). 심화되는 사교육 시장 속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의 양과 질이 달라지는 것이 교육격차의 핵심적 문제인 것이다(김희삼, 2009). 또한 양육자의 교육 수준 및 직업 지위 또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김경근, 2005; 류방란·김성식, 2006; 이중섭·이용교, 2009). 이러한 가정 배경은 양육자의 교육 관여 여부나 가정의 사회자본, 문화자본을 매개하여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장미혜, 2002). 성기선(2010)의 연구에 따르면, 1988년에 비해 2007년에 가정 배경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사교육 참여가 미치는 영향 또한 증가하였으나, 학생들의 사회·심리적 변인과 교육적 노력을 나타내는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은 같은 기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화되어 왔으며, 개인적 노력을 통해 이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음을 내포한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서울지역의 교육격차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편이며, 서울 내 지역 간 차이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수혜 외, 2020). 특히, 지역 간 경제력의 격차로 인하여 학력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김영철, 2004). 학교의 여건보다도 지역의 재정적 상황과 부모의 학력 및 직업 등이 서울지역에서의 진학 및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추경모, 2012). 또한 2009년 수능시험을 서울시 25개 구 단위로 나누어 영어, 국어, 수학 1등급 비율을 계산한 결과 공간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존재함이 확인되었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많은 영향을 끼치는 영어 성적은 강남 3구와 하위권 구의 격차가 상당히 높았다(정재훈·김경민, 2014).

서울교육 종단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된 교육격차 추이 연구에 따르면 부모 학력, 가구소득 등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가 모든 학교급에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학생들이 교육격차를 경험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김수혜 외, 2020). 특히, 서울교육 종단연구를 활용한 연구들에 따르면 학교 간 격차는 고등학교 때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단계에서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유한구 외, 2011; 박현정 외, 2013).

3) 코로나19 시기 교육격차 연구들의 주요 결과

코로나19 시기의 교육격차는 원격 수업으로 인해 학교의 기능이 가정으로 옮겨오면서,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과정의 차이가 심화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이정연, 2021). 코로

나19로 인해 학교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가정 배경이 학생의 교육과 돌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는 원격 수업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과 이해도, 집중도의 차이로 나타났다(김위정, 2020).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시기 교육격차 관련 선행연구들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한 교육과정에서의 교육격차에 주목하였다(박미희, 2020). 재난 상황에서 나타나는 교육격차는 그동안 존재해왔으나 주목받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드러내며, 누가 더 재난 상황을 불평등하게 겪는지 보여준다(박미희, 2020).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설문 조사 기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에서의 차이가 나타났다(이정연, 2021).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낮은 학생들은 학습 외 목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높았고, 이러한 시간이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연, 2021).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에는 보호자의 통제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경제 상황이 낮은 집단은 학습 시간에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학습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이정연, 2021).

또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좋은 학생들이 본인만 사용하는 기기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았으며, 사용하는 기기가 남아 온라인 수업 참여에 방해받는다는 학생 비율은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고등학생들의 경우 11.2%였지만,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27.1%로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연, 2021). 원활하게 온라인 수업을 듣고, 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에서도 가정 배경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온라인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의 12.5%만이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갔지만,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26.2%가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간다고 응답했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확률이 더 높았다(이정연, 2021). 또한, 온라인 수업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을 선생님께 질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가정 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가 드러났다(이정연, 2021).

온라인 수업에 대한 양육자의 교육 지원에서도 가정의 경제적 수준 간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보호자가 등교 및 온라인 수업 관련 학교 일정을 챙겨주거나 온라인 학습 및 과제에 관심을 가진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이정연, 2021). 반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양육자가 온라인 학습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박미희, 2020). 이처럼 이미 양육자가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도움을 주는 상위 경제 계층에서 사교육에도 더 많이 투자하고

있었다. 더 장기간 사교육을 받았으며, 코로나19 이후 사교육을 받는 시간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정연, 202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교육 참여와 양육자의 교육 지원은 교육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학생들이 코로나19 시기에도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지원받으며 학습하고 있다는 점은 교육과정에서의 격차를 시사한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정에서의 격차가 부각되면서, 교육 결과, 즉 학업성취에서의 격차를 실증하는 연구도 시행되었다. 서울 소재 중학교 382개교의 학업성취 등급 분포를 분석한 결과, 중위권은 코로나19 이후 감소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하위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송·안영은, 2021). 또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20년 전국 8개 시도 내 중·고등학교들의 2020학년도 1학기 국영수 평가 결과를 이전 연도의 결과와 비교한 결과, 고등학교에서는 중위권과 상위권이 줄고 하위권이 늘어난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났다(신소영, 202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시기 교육격차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전자기기 및 접속 환경, 양육자의 교육 지원 여부, 교수자와의 상호 작용, 사교육 수강 여부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격차는 노후된 기기를 사용하며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기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사교육을 통해 모르는 부분을 보충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시기 교육격차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구조적 교육 불평등과 연결 지어 생각해야 한다(박미희, 2020).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역량 차이가 지목되기도 한다. 원격교육 경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교사들은 학습 격차 심화 이유로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차이를 64.92%로 가장 높은 비율로 꼽았다(계보경 외, 2020). 다만,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교육격차를 학생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한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신소영, 2021). 자기주도학습을 위해서는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고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은 교사, 다른 학생 등의 학습 자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다(신소영, 2021). 또한, 부모의 학력, 학습환경 및 자원 등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에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온전히 학생 개인의 능력이라고 보기 어렵다(김위정, 2020). 교육 기회와 지원이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지원 아래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소영, 2021).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앞서 살펴본 경기도 내 교육격차 실태에 관한 연구에 응답한 교사 중 반 이상이 온라인 수업에 취약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지원 정책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박미희, 2020).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지원 및 해소 방안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박미희, 2020).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학습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상세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기에 학교들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박미희, 2020).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여러 단기, 장기적 대책이 제시되었다.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수업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더 나은 원격 수업을 위해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학생들은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흥미로운 수업 자료 제공을 32.61%로 가장 우선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학습 플랫폼의 기능 개선 20.43%, 선생님 및 친구와의 상호작용 확대 18.50%, 수준별 학습 자료 및 평가 문제 제공 16.89%로 응답하였다(계보경 외, 2020). 원격 수업용 재미있는 학습 동영상 개발 및 제공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은 김효원 외(2020)의 연구에서도 조사된 바 있다. 한편, 교사들은 원격 수업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가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으로 교사가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 제작 및 공유 플랫폼 제공 24.75%, 교수학습 자료로 적합한 콘텐츠 제공 24.11%, 학교의 IT 장비 및 네트워크 환경 개선 15.92%, 콘텐츠 제작 및 자료 활용을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 14.9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계보경 외, 2020).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별화 교육이 논의된다. 개별 학생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특성, 학습 속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기기 대여나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학습을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현 정책보다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박미희, 2020). 개별화 교육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이 자신에 맞는 학습계획을 세워보고, 자신의 학습 흥미도와 학습 속도에 맞는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하며 개별적으로 이전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신소영, 2021).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수학습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받으며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위정, 2020).

제도적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제기된다. 과중된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김

위정, 2020). 보다 안정적인 고용 형태의 전담 인력을 보강하여 누적된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신소영, 2021).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수업하는 것의 어려움이 대두되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개별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김위정, 2020).

2_서울시 교육정책 현황

2020년 초 코로나19 발발 이후 전국은 혼란에 휩싸였다. 교육부는 전례 없이 반복된 개학 연기와 급증하는 확진자 속에서도 온라인 학습의 방안을 모색했고, 차츰 블렌디드 러닝의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그리고 다양한 학습 방법을 혼합하는 것’(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연도 미상)이다. 이미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일정 수준 발달해있었던 미국에서 사용하던 용어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범세계적인 고유명사가 되었다. 블렌디드 러닝의 의미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해석해보자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수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사용하여 코로나 19 사태 속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취약계층 학생들 대상으로 집중적인 학습 지원이 진행되거나, 블렌디드 러닝에 사용될 온라인 기기가 지원되는 등 교육격차의 최소화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자세한 정책 현황이다.

1) 블렌디드 러닝의 내실화

서울시교육청은 블렌디드 러닝을 내실화하기 위해 기존의 서울교육포털을 응용하기 시작했다. 서울교육포털이란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공 교육 데이터 플랫폼이다. 기존에는 교육 정보 열람 기능을 제공했다면, 2020년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15억 원을 투자하여 원격 수업 지원 통합 플랫폼의 역할이 추가되었고 이후 뉴서울교육포털로 칭해지곤 한다. 해당 포털은 팬데믹 이후 교사들의 블렌디드 러닝 개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교육청은 이외에도 블렌디드 러닝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블렌디드 수업 연수’를 진행하거나 전문가를 모신 직무연수를 진행하는 등 교원들의 빠른 적응을 위해 다양한 연수를 진행해왔다.¹⁾

2)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8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정은선, 2020). 그중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 방안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 계획을 담고 있었다. ‘서울형 블렌디드 러닝으로 학습효과 높이고↑ 취약층 교육지원 강화해 격차 줄인다↓’는 슬로건을 내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 기관 등이 협력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전한다.²⁾

- 교육취약계층 학생 대상 학습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단위 학교별 정책을 고안했다.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대표적으로 ‘초등 기초학력 on(溫)&on 집중 교실’과 ‘초등 기초학력 두리샘’을 운영하여 교육격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초등 기초학력 on(溫)&on 집중 교실은 공립 초등학교 전체(총 526교)에서 2020년 여름방학에 1~2주간 집중적으로 운영되어 초등학생의 입문기 학습 및 읽기, 말하기, 쓰기와 같은 기초학습 능력을 기르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초등 기초학력 두리샘은 대면-비대면을 병행하여 두리샘 1명이 10명 이내의 저학년 및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의 원격 수업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두리샘은 원격 수업일 출석 체크 및 독려, 스마트기기 및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 활용 지원, 원격 수업 이수 현황 확인 및 이수 독려, 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평가 관련 데이터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정은선, 2020). 교육취약계층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중등 1:1 학습서포터’가 운영되었다. 이는 사범대학생이 온라인 교육에 취약한 학생의 학습관리와 출결 독려 등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소재 사범대학 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성사된 프로그램이다.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보다 꼼꼼한 맞춤형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사범대학교 학생을 서포터로 임명함으로써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위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블로그의 정책 설명을 참고하였다. <https://blog.naver.com/seouledu2012/222038031788>

2) 위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블로그의 정책 설명을 참고하였다. <https://blog.naver.com/seouledu2012/222064786143>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일반 학교의 교과과정 이수가 힘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개설되었다. 비교적 최근에 추진되기 시작한 ‘도담도담 마을 학교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를 거쳐 작은 도서관, 마을 기관, 청소년 기관 등에 ‘학교 밖 마을 학교’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마을 학교에서는 학습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기본학력, 정서 심리, 독서 활동, 문화예술, 틈새 돌봄 등 마을 기관별로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한민선, 2021).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집중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 또한 추진되고 있다. 단위 학교에서만 운영되었던 이중언어 교실을 다+온센터(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도 직접 운영하며 다문화 학생 대상의 ‘기초학력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다(정은선, 2020).

-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582명 중 33.1%, 복수응답)이 ‘온라인 수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는 질문에 ‘컴퓨터·노트북·태블릿PC 등이 부족하거나 사량이 낮다’라는 대답을 했다(김미란, 2021). 이러한 기기 미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4월 1일 긴급 간담회를 하고 교육 취약 학생의 온라인 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 각각 4:4:2의 재원을 부담하여 스마트기기(노트북)를 구매,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대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³⁾

전자기기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의 학생들을 위해 기기를 대여해줌으로써 교육격차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새로운 기기를 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능이 떨어져 원활한 수업 진행이 불가했다는 경험담도 있다.

3) 서울런

2021년 8월 27일, 취약계층 청소년 11만 명을 위한 ‘서울런’ 사이트 상용화가 시작되었다. 서울런이란 ‘장기화한 코로나19 상황 등 학습 공백으로 인한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이다. 서울시 내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사교육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통합된 플랫폼을 제공하며, 2023년까지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플랫폼으로의 확장이 예정되어

3) 위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블로그의 정책 설명을 참고하였다. <https://blog.naver.com/seouledu2012/221886913298>

있다. 서울런에서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콘텐츠 지원’ 및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총 8개 사교육 업체 사이트 중 하나를 골라 우수 교과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비교과 과목 관련 다양한 교육콘텐츠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 공부 습관 형성 및 자기주도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원활한 멘토 수요를 위해 500여 명의 서울 소재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서울런 멘토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기기 관련 문제가 프로그램 제공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사랑의 PC 보급사업’과도 연계해 PC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업체의 기부로 확보한 교재 5,000권을 서울런 오픈 이벤트를 통해 무료 배포한 바 있으며 각 사교육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교재 무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던 서울런은 가정의 소득이나 개인적 문제로 인해 기존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없었던 학생들에게 공평한 수강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좋은 여론을 형성해냄과 동시에 교육단체들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교육단체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학습 결손 등이 발생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문제는 학습 콘텐츠가 아니라고 짚었다. 그보다는 학습 공백을 지원해 줄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러면서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주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소외되고 고립된 학생들에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직접 찾아가 학습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교육단체 ‘좋은교사운동’의 김영식 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학습의 기본을 갖춘 아이들에게는 1타 강사의 강의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스스로 학습관리도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플랫폼이 사교육 업체의 직간접적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는 걸 막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교육단체들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인 상황에서 지자체의 플랫폼에서 사교육 강사의 강의를 제공한다든 것 자체가 사교육 조장 행위”라며 “학교 수업의 보완재 역할로 지자체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사교육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공적 기관이 나서서 공교육의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⁴⁾

한겨레 김지은(2021) 기사에 따르면, 서울런을 향한 교육단체의 비판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된다. 교육격차의 당사자가 된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학습콘텐츠의 제공이 아닌 직접적인 도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공적 기관이 사교육 강의를 앞장서서 제공한다는 것은 사교육 조장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구분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예산이 통과된 상황에서 철회를 기대하긴 어렵고, 사업 방향을 대폭 수정해 직접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첨언했다(김지은, 2021). 원활한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여론 또한 존재한다(구자윤, 2021).



4) 해당 내용은 김지은(2021)의 기사를 발췌한 것임.

04. 코로나19 시기의 교육격차 현황과 청소년 인식

1_조사 개요

1) 인터뷰 개요 및 참여대상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격차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은 교사 인터뷰, 학생 인터뷰, 학생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세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들이 직접 자신의 언어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목소리를 조명할 수 있게 한다(May, 2011). 본 연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관련 정책 과정과 선행연구 등에 심도 있게 반영되지 못한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에 의의를 두기에 인터뷰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언어로 직접 그들의 경험과 인식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정책 보완책 제언을 위해 실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공통적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그룹 인터뷰이며, 대화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사용된다(Breen, 2006). 여러 명 사이의 대화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참여자들이 각자의 생각을 더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풍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Williams & Katz, 2001). 본 연구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관련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을 나누었다. 먼저 청소년들을 본격적으로 인터뷰하기 전, 관련자인 교사들을 인터뷰하였다. 교사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의 경험을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정책 관련 의견을 청취하였다. 교사 인터뷰는 서울시 내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참여 자격을 갖춘 교사들에게 편의표본추출법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를 제안했다. 총 3명의 교사를 인터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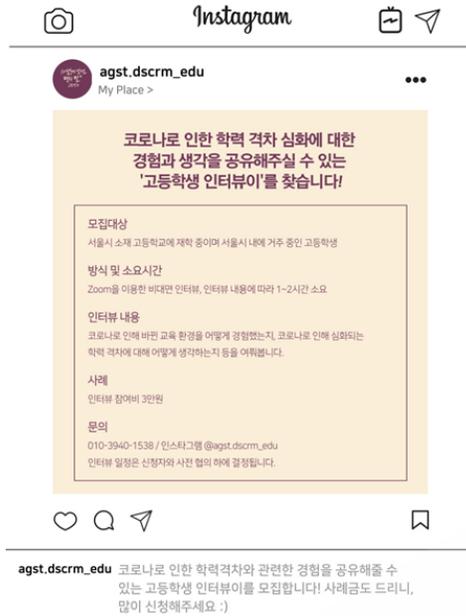
[표 4-1] 교사 인터뷰 참여자 정보

인터뷰이	재직 중 학교 유형	직책
교사01	일반고	교감
교사02	일반고	교사
교사03	일반고	교감

연구 기획 단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를 가장 많이 겪고 있을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경험 및 관련 지원체계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분을 인터뷰하고자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 내 교육복지센터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요청을 드렸으나, 모집에 응한 사람이 없어 교육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 인터뷰를 통해 당사자의 시각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였다. 청소년 인터뷰는 서울시 내 고등학교 재학 중이며, 서울시에 거주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팀은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등 소외계층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관심이 있었으나, 짧은 연구 기간과 샘플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이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을 인터뷰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청소년 인터뷰이를 모집하기 위해 연구 개요, 인터뷰 내용, 참여 자격 등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여 인스타그램 광고를 진행하였다. 인스타그램은 10대-20대에 해당하는 Z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채희주 · 이진숙, 2020), 참여 자격에 부합하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모집 내용을 최대한 많이 노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러한 모집 방식을 통해 편의표본추출법을 바탕으로 12명의 학생을 인터뷰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와의 협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 및 경비의 제한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표본추출법의 한계가 있었다.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이고, 본인 소유의 기기가 있을 때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정환경이 좋은 학생들이 모집 광고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을 모집하고자 서울시 내 교육복지센터에 청소년 인터뷰이 모집 관련 홍보를 부탁드렸으나, 이를 통해 모집에 응한 사람은 없었다. 모집 과정에서의 한계를 인정하며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특성을 살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여러 청소년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4-1] 학생 인터뷰 참여자 모집을 위한 인스타그램 광고

인터뷰에 참여한 12명의 학생은 다양한 학교 유형, 학년 및 소득분위 분포를 보였다. 12명 중 일반고 재학생이 7명이었고, 외고, 국제고, 예고 등 특목고 재학생이 각각 1명씩 총 3명이었으며,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재학생이 2명, 자율형 사립고(전국단위모집 제외) 재학생이 1명이었다. 학년은 고등학교 2학년이 9명, 1학년이 3명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 시간은 0시간부터 10시간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소득분위는 1, 2분위가 각각 1명씩이고 5분위가 가장 많은 4명이었으며 6분위 1명, 7분위 2명, 8분위 2명, 10분위 1명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기에 해당 매체를 사용하기 위한 개인 소유 기기, 인터넷 환경 등 경제적 배경이 뒷받침되는 중상위층 학생들이 다소 많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 학생 인터뷰 참여자의 사교육 참여 시간 분포



[그림 4-3] 학생 인터뷰 참여자의 소득분위 분포



[그림 4-4] 학생 인터뷰 참여자의 전자기기 사용유형 분포

학생 인터뷰이들의 세부적인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4-2] 학생 인터뷰 참여자 정보

인터뷰이	학교 유형	학년	전자기기	사교육 참여시간	소득 분위
학생01	일반고(사립)	2	본인 기기 사용	0시간	5
학생02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2	본인 기기 사용	2시간 이하	2
학생03	일반고(사립)	2	본인 기기 사용	8-10시간	8
학생04	특목고(예고, 체고)	1	본인 기기 사용	10시간 이상	7
학생05	일반고(공립)	2	대여 기기 사용	0시간	5
학생06	일반고(사립)	2	본인 기기 사용	10시간 이상	5
학생07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2	대여 기기 사용	2-4시간	1
학생08	일반고(사립)	2	가족과 공유 기기 사용	10시간 이상	6
학생09	특목고(외고, 과고, 국제고)	2	가족과 공유 기기 사용	0시간	10
학생10	특목고(외고, 과고, 국제고)	2	본인 기기 사용	6-8시간	8
학생11	자사고 (전국단위모집 아닌 자율형 사립고)	1	본인 기기 사용	10시간 이상	7
학생12	일반고(공립)	1	본인 기기 사용	6-8시간	5

인터뷰 전 교사 및 학생들에게 인터뷰 동의서를 보내 인터뷰 참여자의 권리를 안내하고, 서명을 받았다. 또한 인터뷰 시작 전 인터뷰 참여자의 권리를 다시 한번 구두로 요약 설명하였다.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름, 학교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들이 편한 요일 및 시간대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녹취록을 풀기 위해 인터뷰를 녹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사전 및 현장 동의를 구하고 진행되었다.

청소년의 시각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보완책을 제안하고자,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정책에 중점을 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학생 인터뷰에 참여했던 청소년 중 원하는 사람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였다. 총 8명이 지원하였고, 소규모 그룹에서의 원활한 대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중 6명을 선발하여 진행하였다. 6명 중 3명은 일반고, 2명은 특목고, 1명은 특성화

고 재학 중이었으며 참여 학생들의 소득분위는 1분위 1명, 5분위 2명, 6분위 1명, 8분위 1명, 10분위 1명이었다.

2) 인터뷰 질문내용

교사 및 청소년 인터뷰에서는 반구조화 심층 인터뷰 기법을 사용하여, 참여자의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격차 관련 경험 및 인식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하였다(Edwards & Holland, 2013). 교사 인터뷰의 경우 아래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를 통해 파악되는 각 교사의 경험 및 인식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세부 질문을 물어보았다.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교사의 경우 정책 입안 및 시행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교사 인터뷰 질문

1.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교육 환경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시나요?
2.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로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3.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신 학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 어떠한 고충을 겪고 있으신가요?
4. (3번에서 답이 되었다면 스킵) 교육격차로 인해 수업 진행 또는 학교정책을 준비할 때 고민이 된 지점들이 있으셨나요?
5. 코로나19 시기 학생, 학부모, 교사들 사이 의견이 가장 충돌하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6. 학생들이 교육격차를 가정환경, 위치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필요에 맞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7. 코로나19 시기에 기존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진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영향을 받는 이 특수한 시기에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나요?
8. 교육격차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9. 코로나19 시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실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나요?

10. 아무런 제약 없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의 정책(교칙)을 실행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11. (10번에서 답이 되었다면 스킵)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가기 위해서 교육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12. 저희 연구는 고등학생들을 인터뷰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청소년의 시각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보완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민감할 수 있는 이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있어 저희가 연구자로서 조심할 점, 유념할 점 등을 조언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학생 인터뷰의 경우, 학생들의 경험 및 생각을 파악하여 심도 있는 개별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설문 조사를 통해 재학 중인 학교 유형, 코로나19 시기 경험한 수업방식, 기기 소유 또는 대여 여부, 사교육 참여시간, 가정 소득분위 등 인터뷰 참여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파악하였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본인의 경험과 해소를 위한 제안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포함하여 인터뷰 전 학생들이 연구 주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사전 설문 조사 답변을 인터뷰이별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참고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학생 사전 설문 조사 질문

1. 재학 중인 학교 이름을 적어주세요.
2. 현 거주지는 어디인가요? (ex. OO구 OO동)
3.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경험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4. 현재 몇 학년이신가요?
 - A. 고등학교 1학년
 - B. 고등학교 2학년
 - C. 고등학교 3학년

5. 다니고 계시는 고등학교의 유형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 A. 일반고(공립)
 - B. 일반고(사립)
 - C. 특성화, 마이스터고
 - D. 특목고(외고)
 - E. 특목고(과고)
 - F. 특목고(국제고)
 - G. 특목고(예고, 체고)
 - H. 자사고(전국단위모집 자사고)
 - I. 자사고(전국단위모집 아닌 자율형 사립고)
 - J. 대안학교
 - K. 특수학교
 - L. 학교 밖 청소년
 - M. 기타
6. 코로나19 이후 아래의 수업방식 중 경험하신 것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A. 학교 등교 대면 수업
 - B. 학교 등교 수업 녹화본(영상) 시청
 - C. 학교 등교 EBS 강의 시청
 - D. 등교하지 않으며 수업 녹화본(영상) 시청
 - E. 등교하지 않으며 EBS 강의 시청
 - F. 등교하지 않으며 실시간 온라인 수업
 - G. 기타
7. 코로나19 이후 학교에서의 경험이 크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A. 예
 - A. 아니요
8.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변화했다고 느끼시나요?
9. 다음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A. 학교/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대여받은 전자기기로 수업을 듣는다.
 - B. 친구나 친척과 공유하는 전자기기로 수업을 듣는다.

- C. 가족들과 공유하는 전자기기로 수업을 듣는다.
- D. 나만 사용하는 전자기기로 수업을 듣는다.
10. 주당 평균 몇 시간 정도 사교육을 받으시나요?
- A. 사교육을 받지 않음
- B. 2시간 이하
- C. 2시간-4시간
- D. 4시간-6시간
- E. 6시간-8시간
- F. 8시간-10시간
- G. 10시간 이상
- H. 기타
11. 가정의 소득분위는 무엇인가요?
- A. 1분위(월 소득 146만2887원 이하)
- B. 2분위(월 소득 243만8145원 이하)
- C. 3분위(월 소득 341만3403원 이하)
- D. 4분위(월 소득 438만8661원 이하)
- E. 5분위(월 소득 487만6290원 이하)
- F. 6분위(월 소득 633만9177원 이하)
- G. 7분위(월 소득 731만4435원 이하)
- H. 8분위(월 소득 975만2580원 이하)
- I. 9분위(월 소득 1462만8870원 이하)
- J. 10분위(월 소득 1462만8870원 초과)
12.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3. 인터뷰 전 요청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인터뷰에서는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학교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그다음,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교육격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생각을 파악하였다. 코로나19 시기 교육격차

와 관련된 경험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를 인식하게 된 계기 등을 물어보며 교육격차가 학생들의 일상 속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격차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질문하여 교육격차를 야기하는 사회 구조 등의 요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및 의견을 물어보았다. 특히, 청소년 당사자의 시각에서 교육 문제를 접근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핵심 목표를 반영하여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잘 반영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학생 인터뷰 질문

1.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 경험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시나요?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변화했나요? (사전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 질문)
2.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온라인 수업의 형태 중(EBS 강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선호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실시간 온라인 수업 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카메라를 켜시는 편인가요, 끄시는 편인가요? 왜 켜시는 것 / 끄시는 것이 더 편하신가요?
5. 학원에 다닌다면 - 학원에 다니기로 결정하신 데에 코로나19가 끼친 영향이 있나요?
6.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면 - 코로나19로 인해 학원에 다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교육격차가 더 커졌다고 느끼나요?
7. 실시간 수업을 들으며 모르는 점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8. 학교에 다니며 교육격차를 경험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본인 얘기도 좋고, 주변에서 본 친구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9.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가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10.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에 대해 적어주신 본인의 생각을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사전 설문 내용 심화 질문)
11.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가 교우관계나 사제관계에 영향을 미친 경험이 있나요?
12. 코로나19로 교육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 그전에도 교육격

- 차는 계속 있었는데요. 교육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13. 교육격차의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14 [필요 시] 가정환경(경제적)이나 사회 구조 등 외부적 요인이 교육격차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나요?
 15. 서울시교육청이 내세운 코로나19 교육격차 대비 정책 중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또는 혜택받은 것이 있나요?
 16.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 학교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 중인지 알고 있나요? 혹시 본인 학교만의 특이한 대응방식이 있었나요?
 17.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아무런 제약 없이 교육청 또는 학교 측에 '이런 지원을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다면, 무엇을 요청하고 싶으신가요?
 18.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가 없어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전 설문 내용 심화 질문)
 19.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련 정책 등을 내놓고 있는데, 학생들의 목소리는 이런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학생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잘 반영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온라인으로 2시간가량 진행하였으며, 사전에 논의 주제를 담은 PPT를 제작하여 참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행하는 목적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론 설명, 진행 규칙 안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정책 현황,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할 정책 제안 초안을 공유하였다. 인터뷰를 시작할 때 해당 자료에 대해 먼저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이후, 학생들의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개별 학생 인터뷰에서 제안되었던 코로나19 시기 교육격차 해소 정책들을 키워드로 나타내어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참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를 골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 4-5]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활용한 정책 키워드

다음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놓은 코로나19 시기 교육격차 해소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청취하였다. 이후 본 연구에서 제시할 정책 제안 초안을 공유하고, 수정하거나 추가, 보완할 내용, 효과적이지 않은 지점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받았다. 마지막 질문으로, “코로나19를 겪은 세대가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본인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던져 보다 거시적으로 코로나19 시기의 교육격차가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 그리고 코로나19 시기 속을 살아가는 청소년으로서의 위치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마무리를 하였다. 정책 보완책에 중점을 두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구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는 교육격차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통찰을 모으고, 연구에서 제안할 정책 보완책의 방향성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었다.

2_교사 인터뷰 결과 및 함의

1) 코로나19 시기 교사들의 학교 경험

청소년들의 경험을 다각도에서 이해하기 위해 먼저 교사들을 인터뷰하여, 현장에서의 고충과 제안 등을 청취하였다. 교사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시기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다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정책 실행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과 구조적, 체계적 변화가 필요한 지점들을 파악하였다.

교사들은 자신이 경험한 코로나19 시기의 학교 교육을 ‘혼란스러웠다’, ‘정신없었다’와 같은 단어들로 표현하였다. 이들 역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상황들과 변화한 환경에 적응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교사02는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원격 수업 사례발표, 각종 회의 등으로 교사 간 노하우를 공유하며 새로운 온라인 수업 체제에 어렵게 적응해나갔다고 회상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크게 변화한 일상으로 교사들이 출석 확인이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깨워야 하는 매일 아침 상황을 꼽았다. 방 안 환경 때문에 카메라 켜는 것을 꺼리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수업을 듣고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고 반응이 없어 어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또 자신의 원격 수업을 학생뿐 아니라 양육자 등이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는 교사들도 있었다. 교육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코로나19가 처음 터졌을 시기에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 원격 수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에게 디지털 녹화와 원격 수업 방법에 대해 가르치는 온라인 강좌가 개설되었고, 학교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나 녹화 기기 등을 확충하는 과정도 거쳤다.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이 신속하게 도입되고 기기 지원 등이 이루어졌던 초동 대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관련 교사들의 인식

모두가 처음 경험해보는 재난 속에서 최대한 교육을 지켜가기 위해 분투하는 동안, 학생들이 겪는 교육격차가 “극과 극”(교사03)으로 심화되었다는 인식도 대두되었다. 교사 인터뷰 참여자들은 교육격차가 심해졌다고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공부 습관이

잡혀 있는 일부 최상위권 학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목격했다.

「비대면 수업 문제는 중위권 학생의 성적 추락과 아울러서 하위권 학생에 대한 배제가 동시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위권 학생에 대한 배제 문제는 기초학력 문제나 교육격차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조차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교육정책적인 측면이나 국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교사01

온라인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하고, 교사의 부재 속 학습관리가 잘 되지 못하는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학습 부진아에 대한 지도가 어려운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교육격차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가정 배경에 따른 디지털 격차, 부모의 학력과 사회경제적 수준, 그리고 나아가 사교육 수강 여부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졌다고 보았다. 다만, 교육격차를 본 연구에서처럼 불평등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 개인의 학업 역량 차이로만 바라본 응답자도 한 명 있었다.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도 엿볼 수 있었다. 처음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이 준비되던 당시, 교사들 사이에도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할지,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의 격차가 굉장히 컸다. 교사02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관련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배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선생님들의 노력을 통해 온라인 수업이 기틀을 잡았으나, 교사들의 개인적 노력에 교육격차 해소라는 거대 과제를 의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교사01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수업을 개설하였던 경험을 공유하며, 이러한 수업을 교사 한 명이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격차에 대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나의 교사가 열정만으로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많은 거예요. (중략) 기초학력을 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물론 일정 부분 더 헌신하고 열정을 불태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게 매뉴얼화되고 시스템화되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너무 힘든 이슈기 때문에 실제로 매뉴얼화되고 지원화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요.」 교사01

3)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제언

이처럼 교육격차 해소를 개인 교원의 책임으로 전가하기보다는, 교육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여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가며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교사01은 교원학습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사들이 수업 연구를 진행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그 외에도 온라인 수업 콘텐츠 축적 및 공유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이렇게 자료들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놨는데 코로나가 해결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앞으로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수업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 학습 격차를 해결할 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 (관련 수업) 내용을 미리 미리 제공해주는 거예요. 특히 학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에게 미리 제공을 해서 이걸 이렇게 공부할 거니까 미리 미리 준비하렴 하고 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학습 격차에 위한 노력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료가 쌓이고 또 학교 간에 또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제 엄청난 우리나라의 학습 교수 자료의 보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총체적으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하게 된다면 올해는 힘들지만 어려워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학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교사01

교사01은 이같이 온라인 수업으로 축적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이를 기초학력 프로그램 등에 활용하여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교사들은 궁극적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 중심적 개별화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교사01은 앞으로의 교육은 학생들이 개인의 관심사에 맞게 교육과정, 내용을 선택하여 배우는 개별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결과에 중점을 두는 현 시험 중심 교육을 넘어, 과정 중심 평가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IB와 같은 논술형 평가체제를 도입하여 사고하는 학생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정 외, 2019). 교사02는 수업 속에서 학생맞춤형 지도를 시도해본 사례를 공유하였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읽기 자료를 바

탕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교사는 학생들에게 한 명씩 진행 상황 및 과제 등에 대한 개별 피드백을 제공한 것이다. 이처럼 학생 맞춤형 수업이 학교의 지지와 신뢰 속에서 확장되고, 궁극적으로 개별화 맞춤형 교육과정이 시행된다면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교사들은 코로나19 시기 교육과정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하며,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그려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또한 언급되었다. 교사03은 코로나19 시기 학업뿐 아니라 전인적 성장의 측면에서도 가정 배경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보이지 않는 교육, 정말 어떤 면에서는 지식 교육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21세기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행복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동체 활동, 그런 학교 활동에서부터 우리 없는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이 더 심각한 불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교사03

코로나19 시기 학교는 학습을 지속하는 곳으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위 교사는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공간, 사회에서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덕목을 함양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의 역할 또한 중요하며, 사회참여, 시민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학생 자치 등의 활동들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학생들이 집에만 머무르며 학대, 방임 등에 더욱 노출되어 우울감, 자살 충동 등을 겪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점을 짚으며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살피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교사03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기 보급 이후에도 코로나19가 학생들에게 끼칠 장기적 교육적, 심리적, 정서적 영향 등에 대한 고민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3_청소년 인터뷰 결과 및 함의

1) 학교에서의 경험 변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몇 개월 만에 수업을 재개한 학교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계속된 개학 번복과 함께 새로운 반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목소리는 어떤지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렸다. 교육부는 처음 겪는 팬데믹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 '비대면 교육으로의 전환'을 선언하였고, 이후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교육청의 발 빠른 대응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지만, 당사자였던 학생들의 입장은 조금 다른 듯했다.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수업을 듣는 게 처음, 생전 처음이었고 집에서 처음에는 수업을 듣는데 EBS 강의를 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데, 공부가 별로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고 (중략) 학교에서도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집에만 있다가 학교에 가니까.」 학생01

인터뷰에 참여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새로운 학교 및 학년으로서의 적응을 힘들어하였다. 비대면으로 바뀐 수업방식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나 집중을 힘들게 한다는 의견이 존재했으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수업 진행을 체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고 털어놓는 인터뷰이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비대면 수업의 '집중가능성'과 '효율성'에 대해 많은 부분이 지적되었다.

「특히나 공부를 평소에 열심히 안 들었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학교 가면 앉아서 할 거 없으니까 듣고 듣다 졸더라도 필기는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노트북 앞에 두고 그냥 소리가 나오는데 앞에 앉아 있으려니까 애들이 집중을 확실히 더 수업을 안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안 듣게 되는 거 같아요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일수록 더.」 학생08

「개인적으로 저는 대면 수업이 훨씬, 인터넷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좋다고 느껴져서 지금도 대면 수업을 훨씬 좋아하는 입장인데 어쩔 수 없이 상황에 그렇다 보니 인터넷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온라인으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바로 앞에 계시고 판짓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억지로라도 수업을 잘 듣게 되는데요 온라인으로는 줌으로 쌍방향 수업하기 전까지는 그냥 선생님이 영상을 올리시면 제가 시청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 줌 있다 나중에 봐야지'하고 밀리는 경우도 많았고 직접 선생님이 하시는 강의보다는 확실히 효율이 떨어졌던 걸로 느끼고 있어요.」 학생03

비대면 수업의 진행으로 인해 선생님을 직접 볼 수 없었던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는데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특히 업로드된 영상을 시청하기만 하면 되

는 수업의 경우 이를 미루는 학생들이 많아 원활한 수업 진행이 더욱 어려워지곤 했다. 이것처럼 많은 비대면 수업방식 중 단순히 강의를 시청하는 수업은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EBS 강의를 그냥 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공부가 별로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처음 중학교랑 엄청 달라서 적응해야 하는데 수업을 그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적응이 어려웠어요). 학교 수업이 아닌 EBS나 영상 수업은 학교에 또 나중에 가서도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생01

이처럼 팬데믹 초창기에는 많은 교원이 EBS 강의를 수업 자료로 활용하고는 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EBS 강의는 학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우세했고, 학교와 EBS의 커리큘럼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학생도 있었다. 이외에도 비대면 쌍방향 수업 시 수업 지연에 불만을 가진 학생이 많았다. 비대면 쌍방향 수업 특성상, 학생들이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카메라를 켜지 않는다면 출석을 확인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제 간 충돌이 생겨 수업이 지연되고 이에 타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게 된다.

「저희 반은 유독 괜찮은 편인데 가끔 그래도 조느라 늦게 들어오거나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먼저 저희 (반은) 밴드에 출석 체크 하는 거를 올리세요 그리고 거기서 체크를 한 다음에 줌 수업을 할 때 누가 안 왔나 체크하는 식인데 누가 안 들어오게 되면 그 친구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기다리고 이러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안 오는 친구 기다릴 때는) 다 같이 화면은 켜고 음소거한 상태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사탐 같은 경우에는 옆 반하고 원래 이동수업으로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될 때는 옆 반에 소수의 수업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학생들에 의해서 수업의 흐름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카메라를 얼굴에 안 비춰서 ‘누구 학생 얼굴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꽤 있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는 사실 다른 반이고 크게 연관이 없는데 같이 수업을 듣는다는 이유만으로 어쩔 수 없이 수업의 흐름이 깨지니까 그런 게 제일 싫었던 것 같아요」 학생03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집중도와 수업 도중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에 얼굴을 비춰주세요' 등의 발언을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요소들이 타 학생들의 집중과 수업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모든 학생의 집중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오히려 타 학생들에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듯했다. 비대면 수업 진행 시 학생들은 가정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목격할 수 있었다.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친구들도 많았고 일단 생활 패턴이 완전 바뀌어요 왜냐하면 출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원래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시간인데 출석 버튼만 눌러놓고 다시 자는 친구도 되게 많아서 몸이 망가졌다 이런 소리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생09

비대면 수업은 영상 시청부터 쌍방향 수업까지 그 방식이 다양하다. 그중 출석을 인증하는 것이 비교적 쉬운 영상 시청 수업의 경우, 누르면 자동적으로 출석이 인정되는 이른바 '출석 버튼'만 누른 채, 제공된 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다시 잠을 청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더불어 일찍 기상해 등교를 준비해야 하는 대면 수업 주간에는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의 유지가 가능한 듯 보였지만, 등교를 하지 않는 비대면 수업 주간에는 오히려 생활 패턴이 무너진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과 불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격주로 반복된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등교를 하면은 매일 여섯 시에 일어나고 열두 시에 자고 하는 그런 생활 리듬이 되는데 격주로 수업을 온라인을 나가고 학교를 나가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 두 주 사이에는 생활 리듬에는 차이가 있거든요 생활 리듬이 너무 불규칙해져서 오히려 더 피곤함이 생긴다는 느낌을 요즘 들어서 많이 받는 거 같아요.」 학생08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고, 끼니를 제때 챙겨 먹지 못하는 학생 또한 늘어났다. 맞벌이 부모님을 둔 학생의 경우,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 밥을 먹기 어렵다. 평소처럼 학교에 등교했다면 규칙적으로 나오는 급식을 먹었겠지만, 곁에서 끼니를 챙겨주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또 다른 거는 점심 같은 것도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여서, 그러다 보면 집에서 귀찮아서 (식사를) 거르게 되는 경우도 진짜 많았거든요 학교에 일단 등교를 하

면 기본적으로 점심은 급식으로 챙겨주니까 딱히 끼니를 거를 일은 없는데 온라인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꽤 생겼어요。」 학생03

비대면 수업의 또 다른 문제점은 학생의 모습을 비추는 카메라에서부터 비롯된다. 비대면 쌍방향 수업에서의 카메라는 학생의 출석 여부 및 수업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하지만 카메라를 켜고 시, 학생 본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학생이 위치한 장소의 뒷배경까지 모두 송출된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 바 있다. 이 문제는 원격 수업 프로그램으로 사용되는 Google Meet, ZOOM 등의 배경 블러(blur) 기능을 통해 일정 부분 방지될 수 있었으며 실제로 많은 학생이 이 기능을 활용한다는 것을 목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 실시간 수업의 경우 아직 배경을 가릴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배경까지는 못 바꾸더라도 EBS 실시간 수업은 블러 처리하는 게 아예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방 배경이 그대로 보이는데 솔직히 저도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약간 벽지가 옛날 거라던가 하는 건 저는 상관없고 괜찮은데 바로 뒤에 침대가 있어서 좀 바로 보이는 게 좀 싫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런데 자매면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친구들은 다른 방 가서 수업을 듣는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안방 가서, 동생은 안방 가서 수업을 듣는다든지 해가지고 네 저는 집 주변 보이는 게 정말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다 이렇게 밑으로 카메라를 밑으로 해서 천장이 조금 보이게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학생01

이외에도 학생들은 아침부터 초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맥락의 의견을 내었다. 다음은 비대면 수업 시 사제 간 질의응답에 대한 사항이다. 기술의 발달로 비대면 쌍방향 수업에서 또한 원활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한계점이 다분하다. 수업을 하는 데에 있어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대목에서 불만 사항을 토로하기도 했다. 심지어 ‘쌍방향 수업을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 같다.’라고 답한 학생은 12명 중 단 한 명밖에 없었다.

「오프라인으로 수업할 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손 들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켜고 얘기하면 그만인데 그거 자

체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려는 게 있어도 오프라인만큼 궁금증이 해소되지도 않고 질문을 하기까지의 과정도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해하고 있는지는 선생님이 확인을 하셔야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카메라를 켜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이해되지 않는 학생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궁금한 내용 있으면 메시지로 물어보면 된다, 밴드에 있는 특으로 물어보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또 사실 직접 만나서 여쭙보는 것보다 설명이 텍스트로만 보니까 좀 외닿지 않더라고요」 학생03

「온라인 수업, 온라인 클래스를 할 때 실시간 쌍방이 아닐 때는 내가 수업을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듣다가 내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그걸 당장 선생님들께 질문을 할 수 없으니까 게시글을 올리는데 게시글을 올려도 선생님들께서 보통은 안 봐주시거나 아니면 제 질문사항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08

비대면 쌍방향 수업에 참여할 때는 학생이 교사에게 바로 질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해당 수업방식의 특성상 질문하는 과정이 송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이 영상 시청 수업 때 생긴 질문을 각자 다른 방식으로 교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느냐는 물음에 ‘친구끼리 물어보고 답한다.’ 또는 ‘가족이나 지인 또는 학원 선생님께 물어본다.’라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질의응답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교사가 전달하려 했던 본래 정보와는 결이 다른 답변이 대리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학생02와 학생04는 실습과 특수과목의 수강이 중요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비대면 수업의 애로사항을 설명해주었다.

「특히 이제 저희 학교는 (특수 분야의 고등학교)이니깐 실습이 진짜 중요시되는 곳이라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간호조무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중략) 실습을 잘 못 하니깐 이제 영상으로만 보면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확실히 실제로 잘 해봐야 되는 수업이니까」 학생02

「우선은 저희는 이제 예고라서 학교 자체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공연 실습이라는 시간이 따로 있고 또 전공하는 애들끼리 같이 모여서 전공을 같이 하면서 이제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라던가 오케스트라 같은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은 학교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래서 그런 기회를 이제 하나도 누리지를 못하고요 저는 1학년에 들어오면서 이 학교에서 다른 애들 이랑 같이 연주를 하면서 교류를 하고 이런 점을 원했는데 그런 걸 하나도 못 누리게 되는 바람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04

이처럼 실습이 중요한 마이스터고등학교나 예술고등학교처럼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그들만의 아쉬움과 불편사항들이 존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기존 정책은 일반적인 교과목만을 수업하는 고등학교를 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학생02와 학생04의 사례는 더욱 많은, 다양한 유형의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서 관련 정책도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장점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이 비대면 수업의 장점으로 '편안한 분위기'와 '미등교로 인한 시간 단축'을 들었고, 일부 상위권 학생의 경우 수업을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음을 내세웠다. 또한 원격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ZOOM의 경우 특정 수업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평도 있었다.

2) 비교과 활동 방식의 변화

개학 연기로 인해 학생들 간의 주된 교류가 차단되자 자연스럽게 발표, 토론, 실험 등의 수업도 사라지게 되었다. 학생들은 팀 프로젝트나 연구, 조별과제 등의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기대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기회가 사라짐에 아쉬워한 것은 학생뿐만이 아니었다. 학생08의 과학 교사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실험을 직접 해보고 (중략) 하는 건데'라며 실험을 진행하지 못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이외에도 국어 교과목의 토의 수업 또는 타 교과목의 모둠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획일화되었고, 경험의 공간이었던 학교는 그 특색을 점점 잃어가고 말았다.

「학교가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런 학생들끼리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내는 장소이기도 하면서 또 다양한 탐구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 주는 역할을 조금씩은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점은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학생08

연일 똑같은 형식의 수업 속에서 차별화를 피한 교사의 사례도 들어볼 수 있었다.

「Zoom에서도 따로따로 소규모 회의실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열 몇 개씩 만들어 놓으셔서 선생님께서 메인 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파트너를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각자 번호 정해주는데 들어가서 거기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10

ZOOM의 소회의실 기능을 사용하여, 대면 수업 시 모둠을 나누듯 학생들을 소회의실에 분배하고 해당 회의실에 입장해 조별 활동을 하는 형식이다. 비록 비대면 수업일지라도 프로그램을 활용한 활동적 수업 시도는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집중력 또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비교과 활동이라고 한다면, 동아리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언택트 상황 속에서는 동아리 활동에조차 많은 제약이 생긴다. 대표적으로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하이다. 화상회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동아리는 부원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학생09가 전했다. 또한 SNS를 통해 전달할 수밖에 없는 공지사항은 큰 효력이 없고 동아리 과제 수행을조차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학생04는 입학한 지 9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학생11의 학교에서는 밴드부 및 체육 관련 동아리들의 활동이 독서나 지습 등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친구들과 깊게 탐구하고, 활동할 수 있었던 동아리 시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3) 대인관계의 변화

‘코로나19가 유행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의 코로나 세대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 관계를 맺는 법 등에 서투를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속 소통은 단순히 코로나 세대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교우 간, 사제 간 교류 단절은 학생들의 청소년기 학교생활에도 거대한 영향을 주었다. 보통의 상황이라면 1학기가 끝났을 시점에서야 동급생의 이름을 외우고 안면을 트게 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인터뷰이의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우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교우관계뿐만이 아니다. 사제관계 역시 코로나19의 범주에서 피해갈 수 없었다. 코로나19 이전 시기에 담임선생님, 교과목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통해 유대감을 쌓아왔던 학생들은 지난해 그럴 수 없었음에 아쉬워하고 있었다.

「선생님과 학생들에 관한 관계에 관해서는 (코로나 전) 중학교 때는 그래도 선생님들에게 뭔가 가끔 심부름도 받고 (선생님들이) 어떤 것을 물어보기도 하시고 가끔 수다도 떨어주시면서 학생들과 조금이라도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던 거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진도로 바빠지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활동을 하실 여력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랑 수다를 떨 여력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쌤들에 대해서 뭔가 유대감이라는 것이 많이 안 남아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게 아쉬운 거 같아요」 학생08

4)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의 심화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의 심화는 청소년들도 오롯이 느끼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이 현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해당 모습이 잘 반영된 학생08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일이 전보다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듣게 되면 온라인 기기로 집에서 보통 듣게 됐는데 온라인 기체가 저는 운이 좋아서 아버지가 제공해주신 노트북으로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렉도 안 걸리고 되게 편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집에 자녀가 많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기기가 부족하거나 와이파이가 잘 안 되거나 기체가 옛날 것일 수도 있잖아요. 수업에 집중을 하고 싶어도 렉이 걸려거나 버벅거림이 있다고 하면 수업에 집중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간의 성적 차이나 집중도 차이 아니면 관심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아니면 집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어떤 친구는 자기 방이 없어서 아니면 책상이 없어서 앉은 자리에서 아니면 원래 쓰지 않던 책상에서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집중도가 아무래도 많이 차이가 있겠죠」 학생08

대부분의 인터뷰이들은 교육격차 심화 현상의 원인으로 '부모의 경제 수준 차이'를 꼽

있는데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터뷰이도, 영향받는 것을 목격한 인터뷰이도 많았다. 코로나19 시기 부모의 경제 수준 차이는 학생의 학습권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부모의 경제 수준이 높지 않은, 즉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현저히 떨어진다. 실제로 주당 사교육 시간이 0~4시간인 학생 5명 중 4명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사교육을 더 받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의 부족은 학생의 자기 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제가 확실히 사교육을 받지 않으니깐 저 혼자서, 학교도 가지 않으면 진짜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게 진짜 자기 스스로 컨트롤 할 수가 없으면 정말 뒤쳐지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딱 멈춰서서 저 혼자 다른 애들은 진짜 뛰어가고 있는데 엄청 엄청 뒤쳐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학생01

더불어 거의 모든 인터뷰이가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상위권을 노릴 수 없다고 대답했다.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의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를 당하는 학생도 있었다.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정말... 그리고 약간 수업 따라가지 못하면 그냥 그 시간을 멍 때리거나 좀 자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지속되다 보면 반 내에서도 좀 친구들끼리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무시를 한다거나. 좀 그런 살짝 의도치 않은 무시(를 당해요).」 학생01

반면 본인의 성적이 높은 경우 오히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득을 본 학생도 존재했다.

「저는 그 오히려 성적이 높은 군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오히려 선생님들과의 단절된 건 좀 안타까웠지만 학생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어 이거 이참에 공부나 할까 하고 제 인생에서 노는 시간이 빠지고 조금 더 쉼을 한 시간이라도 더 잡게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막 그냥 닥치고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게 몸에 좀 배게 됐던 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뭔가 외로울 수도 있었지만 그거를 그냥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별로 뭐 그런 건 없었던 거 같아요.」 학생08

해당 학생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이전에 공부의 습관이 잡혀 있었으며 이미 상위권이었던 학생에 속한다. 이 사실로 미루어보아 공부 습관이 잡혀 있지 않았던 기존 중하위권의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상위권을 노리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생11과의 인터뷰를 통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근데 그 순위권 안에 드는 친구들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게 어느 정도 계급마냥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느껴지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들인 노력의 양 자체가 다른 것도 있을 거고 또는 품질이라든가 방법 이런 게 오랜 차원에 걸쳐서 쌓이는 게 쉽게 깨부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11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개개인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이 더욱 중요시되기도 한다. 학생08처럼 자기주도학습의 방법을 이미 아는 학생들은 코로나19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방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12는 비대면 수업 준비의 일환으로 전자기기를 구입하자 성적이 하락했다.

「사실 이제 제 잘못이 크긴 하지만 제가 공부를 조금 소홀하게 한 건 제 잘못이 맞긴 하지만 제가 원래는 중학교 2학년 때는 게임을 안 했거든요. 컴퓨터 게임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업 들으려고 컴퓨터를 새로 샀어요. 새로 사면서 어쩌다가 게임에 빠지게 되면서 수업을 또 소홀히 되게 되고 계속 이해도 안 되고 학원을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학교에서도 이해 못 한 내용을 학원 가서 이해하려니까 더 어려운 내용이니깐. 그래서 이렇게 연결고리처럼 더 약순환이 된 거 같아요. 그때부터 성적이 좀 많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학생12

청소년의 가정 배경과 양육환경, 양육자의 교육법의 중요성을 짚어준 인터뷰이도 있었다. 학생08은 본인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 또는 공부를 잘해야 내가 사는 게 나아질 것 같다는 인식은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일차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제일 크게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생긴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학생05는 일반고의 교육과정과 특목고의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학교 특성에 따른 교육 기회 불균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냈다. AP(Advanced Placement) 과목이나 고

급물리처럼 비교적 다양한 수업 이수의 기회가 주어지는 특목고와는 달리 일반고 학생은 그런 수업을 들을 수조차 없다며 그마저도 물리나 경제 같은 비인기 과목은 내신 등급을 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교급의 차이는 교육격차를 심화하는 또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5) 기타

「서울에서도 어떤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다 보니까 물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부모님)이 돈을 다 잘 버는 건 아닌데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거나 갑자기 돈이 없어지거나 하는 친구들(의 부모님)은 주변에서 거의 못 봤어요」 학생06

학생06처럼 일부 고소득층 가정 청소년의 경우 다른 계층과의 접촉이 없을 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사태를 덜 심각하게 느끼는 경향을 발견하기도 했다. 학생06은 해당 교육격차 심화에 대해 개인의 노력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는데 소득분위가 비슷한 학생03이 본인과 가장 친한 저소득층 학생의 사연을 보며 교육격차를 체감했던 것과는 대조된다.

서울시교육청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대비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학생도 있었다. 학생03은 당일 시점의 서울시교육청 교육격차 해소 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었다.

「기기 지원은 기본값이고 거기서 추가적인 지원이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하는 게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학생03

정책과 관련한 청소년의 의견은 다음 섹션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05.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1_연구 결과들의 요약과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중 아는 것이 있는지 청소년 인터뷰이들에게 질문하자, 12명의 참여자 중 10명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서울런이 시행된 이후 인터뷰가 진행된 2명은 서울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중 1명은 서울런이 교육격차 해소 정책이라는 사실을 대략적으로 들었지만, 시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학생들은 정책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수혜자인 학생에게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수 학생은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 등을 다소 거리감이 있고, 직접 소통할 수 없는 기관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청 및 지방정부 등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학생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코로나19 시기 교육청 및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학교생활 및 운영사항이 결정되고, 지침이 없는 부분에 대해 교사들이 난감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의 정책이 학생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 아래로부터 쓰는 정책 제안이 기존의 하향식 정책 전달 과정을 넘어 보다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전시켜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학생 인터뷰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면, 무엇을 제안하고 싶은지 질문했다. 학생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교육비 지원,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 기초학력 보장, 개별화 학생 맞춤형 수업, 사교육 경감, 1:1 학생상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자기기 확대지원, 비교과 활동 보장, 시험 난이도 조절, 방과후학교 개설,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진행, 멘토링,

전면등교, 고교서열화 해소, 입시 중심 교육 제도 변화 등이 언급되었다. 학생들은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부족한 점,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제안책의 현실적인 한계와 교육 제도 개선 및 사회 구조 변화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부분도 언급하였다.

또한 교육정책에 학생들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생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민원처리 시스템, 학생 대상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책 구상, 교육청이나 장학사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보다 직접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통로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인력의 한계 등으로 어려운 지점들도 있겠으나,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청취되어야 한다는 학생들의 뚜렷한 의사가 엿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소년 참여자들은 수동적인 정책 수혜자의 위치를 넘어서, 주변의 교육격차 및 교육 불평등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관련 교육정책에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능동적인 주체의 모습을 보였다.

2_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및 함의

정책 보완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진행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관련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앞서 실시된 학생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참여자가 관련 정책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응답했기에, 배경 지식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및 서울시 정책을 먼저 소개한 후 학생들의 평가를 청취하였다. 서울시교육청 정책은 2020년 발표된 블렌디드 수업 내실화 지원 및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으며, 서울시 정책의 경우 2021년 발표된 서울런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의 블렌디드 수업 내실화 지원정책에 대해 학생들은 예체능 계열 등에는 블렌디드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다양한 학생들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블렌디드 수업’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바로 다가오지 않아 어려움이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블렌디드 수업이 진행될지에 대한 호호함을 느끼는 학생들도 많았다. 또한,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교사 연수 시 사전에 교수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연구를 진행하여,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여 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에서 2021년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서울런에 대해 학생들은 여러 긍정적 평가와 우려점을 내놓았다. 서울런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던 교육격차 해소 방안과 비슷한 지점이 있다고 평가한 한 학생은 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며 궁금한 점을 답변해주는 전문 인력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서울런에서는 현재 8주 한정이기에는 하나,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을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업 역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공교육을 내실화하기보다 사교육 업체와 연계하여 교육격차 해소 정책이 진행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일단 단·중기적인 학생들의 학업 역량 학업 역량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인강은 사용자들과의 피드백과 또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발전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학업 역량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좋은 것 같고요. 또 반대로 공교육 내실화나 이제 약간 사교육 업체 배 불러주기 이런 측면에서는 안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05

이에 대해 사교육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접근성 차원에서 서울런의 연계 플랫폼이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서울런의 장단점에 대해 모두 공감하면서, 강의 제공뿐 아니라 학생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돕는 지원과 연계되어 시행하는 방향성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그 외에 일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은 전자기기 대여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특성화고에서 엑셀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은 대여받은 전자기기가 해당 수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노트북을 지급받고 사용해 보니까 화면도 더 크고, 저희 학교 특성상 약간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수업들도 있는데요. 사실 컴퓨터가 있는데 좀 속도가 느리고 프로그램에 제약도 있다 보니까 잘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노트북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편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07

또 다른 학생은 수업을 듣는 것 외에도 개인적인 공부에도 대여받은 전자기기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저희가 정보화 시범학교 그런 걸로 선정이 되어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학교에서 크롬북을 지원을 해줬어요, 학생들에게. 그거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

요. 학교 공부만이 아니라 모든 공부 관련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대여받은 기기에는 굉장히 만족하는 편입니다.» 학생05

해당 학생은 자신이 경험한 교육격차로 사교육 등을 통해 입시 정보 등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 사이의 정보 격차가 느껴진다는 점을 꼽았었는데, 전자기기를 통해 온라인 입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정보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었다.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외에도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학생들이 코로나19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이 무엇인지 청취했다. 기존 학생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정책 제안들을 키워드로 제시하였고, 학생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의 필요성, 관련 실태, 실행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학생 및 교사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팀에서 도출한 정책 보완책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들이 지적해준 부족한 점, 추가해야 할 점, 구체적으로 도입이 가능할 부분 및 고려할 지점 등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1년 10월 진행된 작은연구 결과발표회에서 발표한 기존의 6개 정책 보완책을 수정하여 총 8개의 정책 보완책을 제시하게 되었다. 자세한 정책 제안은 다음 섹션에서 이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3_정책 제안

1) 교육청의 지원정책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개선

학생 인터뷰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육청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관련 정책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은 학생들의 일상생활 및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학생들은 정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러 인터뷰 참여자들이 학생들에게 정책 정보가 더 자세히 공유되지 않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이 공유되었다.

「그런 지원이 있는데도 우리가 모른다는 건 단순히 홍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육청의 위신이나 아니면 사업 진행도들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당장에 학생들이 수혜자인데 그걸 모르면 받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면에서라도 홍보는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08

위 학생은 정책이 단순히 홍보가 잘 안 되었다거나, 교육청의 위신이 떨어졌다고 인식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정책의 수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알리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학교에서 정책 사업에 대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이한테 정책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학생07

학생04 또한 지원정책의 홍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서울시에서 정책을 많이 했고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냈는데 이런 거를 학생이 모르고 있다는 걸 보면 자세히 학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사이트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든지 학생에게 전달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학생을 위한 방안인데, 학생이 모른다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04

이러한 지적에서는 학생들이 단순히 자신에게 해당되는 교육정책을 수동적으로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책을 찾아갈 수 있다는 주체성을 기반으로 한 인식이 엿보인다. 또한, 좋은 정책이 만들어져도 학생들이 이에 대해 잘 모르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문제 인식도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소외계층 지원정책의 직접적 수혜자를 인터뷰하지 못하여, 수혜자에게 개별적으로만 홍보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 청소년들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정보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받는 코로나19 시기에 중요한 성찰점으로 보인다.

교육청의 정책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학생들이 쉽게 다양한 교육정책을 접할 수 있는 누리집을 제작하고, 학교급별, 카테고리별, 소득분위별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누어 학생들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책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현 서울시교육청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은 여러 게시판으로 나누어져 정책과 지원 내용을 한눈에 보기 어려우며, 학생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청 및 학교 관련 소식이 공유되는 서울교육소식 사이트에서 코로나19 교육격차 관련 정책을 학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섹션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며, 교육부에서 제작한 코로나19 등교·원격 수업 관련 정보 사이트를 활용하여 학생 친화적으로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섹션을 추가할 수도 있겠다. 예산과 인력상으로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어렵다면, 당장 중요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와 관련된 정책

을 학교 e-알리미 또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알리는 것부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안 모두 학생들이 쉽게 정책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반드시 후속되어야 한다.

2) 학생들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 구축

코로나19 관련 교육정책 입안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등장하는 현시점, 본 연구는 교육정책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로 교육의 목표와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정책과 함께 고려할 점, 각 정책의 장단점 등을 제시하는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을 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혜자로 위치 지어졌던 학생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보다 평등한 의사결정 과정과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 인터뷰 결과, 학생들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학생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민원처리 시스템, 학생 대상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책 구상, 교육청이나 장학사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보다 직접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통로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2020년 12월 서울교육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2020 서울교육공론화: 코로나 시대, 서울교육에 바란다' 정책권고안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였는데, 해당 정책 권고를 위한 공론화 과정에 교사, 학부모와 더불어 학생들이 참여한 바 있다(박선미, 2020). 이러한 정책 권고 과정을 보다 상설화하고, 더욱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수 있겠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매년 교육여론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발표해오고 있다. 교육정책 및 현황 등 다양한 영역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고 있으나, 설문 대상이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으로 한정되어 있다(임소현 외, 2020). 최근에는 교육부에서 2021년도 2학기 등교 확대와 관련하여 전국의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약 56만 명의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사이의 학생들이 이 설문 조사에 응답하였다(남궁양숙, 2021b).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학생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정기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는 체계를 정부, 교육청, 교육연구기관 등이 협업하여

마련하고, 교육정책 수립 및 평가에 있어 해당 설문 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인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팀은 청소년 사회 참여 연구를 진행하며 교육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실천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교육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교과 또는 프로그램 도입을 고민하게 되었다. 교육학자들은 학생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시민참여 교육(action civics)와 비판적 실천 시민성(critical civic praxis)의 중요성을 설파한 바 있으며, 학생들이 자신이 경험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 행동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Levinson, 2012; Nam, 2012). 청소년 사회 참여 연구 또한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하는 교육 이슈를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두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주변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참여 학생들은 공동체 의식과 정치효능감 등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김현경, 2015). 학생 자치 관련 업무를 맡았던 한 교사 인터뷰 참여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의 역할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이끌어내고 싶은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관련 학생 의견 수렴 실시 등을 바탕으로 교육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치 활동 또는 교육 활동을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제대로 된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학생05의 인터뷰 내용을 상기하며, 학생들이 직접 교육 문제에 대해 탐구하고, 정책안을 제시해보는 과정을 민주시민 교육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을 둘러싼 현실 및 그 이면의 사회 구조에 대해 깊이 있고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사회에 기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정규 교과목이 아닌 교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사회참여발표대회를 모델로 하여 교육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당 대회는 공공정책 제안을 통해 청소년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에 초점을 두며 문제점 찾기, 관련 자료 조사, 공공정책 만들기, 실천하기의 단계로 이루어진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0). 이러한 프로그램 또는 교과목을 통해 청소년들이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탐구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며, 이를 실제 정책에도 반영해나간다면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향상, 민주시민 양성, 교육정책 개선 등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교육비 지원 개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여러 인터뷰 참여자들이 교육비 지원을 제시하였다. 가정의 소득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교육 기회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교육격차가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정책 제안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인터뷰 참여자 중 사교육 참여 시간을 0~4시간 사이로 응답한 학생들 5명 중 4명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사교육을 더 받지 못한다고 대답하였으며, 소득분위가 낮은 인터뷰 참여자들은 재단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공부에 필요한 교재 및 인터넷 강의를 구입하고 있었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이에 필요한 교재 구매에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자료 및 교재를 쉽게 구입하여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에 비해 학업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되게 기초 실력이 낮은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학원비랑 교재비인 것 같더라고요. 인강은 EBS 인강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학원은 부모님이 보내주는지 마는지의 문제이고, 학원에 못 간다면 교재를 풀면서 자습을 하면 되는데 이 교재를 사는 데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려고 할 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문제집이나 학습서 개발서 같은 거에 돈을 쓰게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08

교육비 지원은 학생들이 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공부를 하지 못하고, 이러한 차이가 더 심각한 격차 및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은 2022년 3월부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데 19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위소득 70% 이상 가구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중위소득 60% 이상 가구 대상 학비 지원 단가 인상,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대한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및 사회통합 전형 시행 학교 수익자부담경비(기숙사비, 앨범비) 지원 단가 인상 등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김보연, 2021). 다만 이러한 교육비 지원은 방과후 자유수강을 제외하고는 학교에 다니기 위한 필수 경비를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방과후학교를 전면 취소한 학교들도 있었던 것을 감안하였을 때 학생들의 공부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장애물로 작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는 인터뷰 참여자들은 지원금 신청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사용을 위해 인증을 받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또한,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 배경으로 인해 교육 기회 접근이 어려운 교육 불평등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저소득층 학생들이 사교육을 많이 받으며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의 학생들에 비해 뛰어난 성적을 받기가 쉽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학생들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인재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장이 필요해 보인다. 2021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은 서울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 지급된 입학지원금을 언급하며 현재 교복과 전자기기 구매로 한정되어있는 입학지원금으로 교재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해당 지원금은 입학하는 학생들의 교복 구매 등으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현재 교복, 체육복 등 의류와 원격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구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최세민, 2021).

학생08은 코로나19 시기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 사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경제적 지원이 가장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다른 부분은 거의 코로나 터지기 이전이나 이후나 부모님이 성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한데 코로나 이전에는 아이들에게 재원을 더 써줄 수 있었던 사람이 코로나가 터지고 아이들에게 재원을 더 못 쓸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맞으니까. 어린이를 둔 부모들이 교육을 위해서 금전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수준에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학생08

위 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가정환경으로 인해 경험하는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비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다. 실제로 학생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부모님이 실직 위기를 겪었거나, 주변 친구들 중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이 있었던 업종에 종사하는 가정의 학생이 어려워진 가정 상황으로 인하여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었다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학생의 교육에 영향을 끼친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대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폐업하여 가정 상황이 어려워진 재난 피해가구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이 추가

로 지급되기도 하였다(최원형, 2021).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 또 한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거나, 폐업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4)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생 중심 다양한 수업 콘텐츠 및 온·오프라인 교수방식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도입되었던 초기,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초기에 제대로 된 원격 수업 시스템 없이 수업이 EBS 영상으로만 대체되어 공부가 잘 안되었다고 회고하는 학생도 있었으며, 원격 수업을 위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 사비를 들였다는 교사도 있었다. 교사01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난 초기에는 선생님들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원격 수업에 필요한 영상 촬영 및 편집, 줌 사용 방법 등을 배웠으나, 개인 선생님들의 노력만으로 이러한 수업 체제를 이어가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까지 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수방식과 수업 콘텐츠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교사01의 제안이 시급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선행연구에서도 교사들은 원격 수업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교사가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 제작 및 공유 플랫폼 제공 24.75%, 교수학습 자료로 적합한 콘텐츠 제공 24.11%를 꼽았으며, 학생들은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흥미로운 수업 제공을 32.61%로 가장 우선시하였다(계보경 외, 2020). 본 연구에서는 2021년 2학기 전면등교가 논의되거나 이미 시행된 시점에 인터뷰가 진행되었기에 학생 인터뷰에서는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러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제안 사항을 교사01가 제안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 콘텐츠 및 시스템 구축과 결합하여 위 정책 보완책을 제시하게 되었다.

많은 학생 참여자들이 교육격차를 경험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수업을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기초학력 보장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일대일 또는 소수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았다. 일부 학교에서는 소수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반면, 다른 학교에서는 기초학력이 안 되는 학생들을 모아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하는 사다리학습이나, 수행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못 넘은 학생들을 점심시간이나 방과후에

모아 추가 학습을 시키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또한, 학생01은 재학 중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수업이 이미 기초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의고사 풀이를 위주로 개설되는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제안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수강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면, 학생 중심 교육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한다. 신소영(2021)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풀이식에 그치는 기초학력 프로그램으로는 학생들이 모르는 개념의 기초를 다지고, 개인별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기 어렵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한 수업 방식이 현실화된 만큼, 이러한 블렌디드 러닝 시스템을 기초학력 보장에 적극 적용하여 교육격차를 겪는 학생들이 다양한 교수방법과 콘텐츠를 통해 개념을 학습하고, 응용해보고, 모르는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효과적으로 학업성취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블렌디드 러닝 정책 또한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방향성 아래 진행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온·오프라인 수업을 혼합하여 학생 중심 수업 과정을 구현해낸 거꾸로 수업 등의 실험 등을 확대 시행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다. 거꾸로 수업은 강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학생들이 사전에 숙제로 보게 오게 한 다음, 수업 시간에는 다양한 학습자 중심·상호작용적 그룹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이 그룹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교사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더 학습 지원을 할 수 있기에, 교육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지성배, 2017). 거꾸로 수업은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민권, 2019). 이와 같은 교수법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에 도입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02는 거꾸로 수업 사례와 관련 콘텐츠들을 모아 교사들이 활용 가능한 콘텐츠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교수법을 혼합한 블렌디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5)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상담

학생들이 자신이 부족한 지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학습 방식을 기반으로 공부해야 할지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상담이 인터뷰에서 정책 대안으로 제시되

었다. 해당 인터뷰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맞춤형 교육 상담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어무래도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가 공부를 배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면서 정서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자제력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선생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번 주는 어땠는지, 정확히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10

이러한 맞춤형 교육 상담을 통해 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파악하고 교육 과정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 또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진단하고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기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시기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며 학습관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양육자가 교육에 관여하거나 지원하는 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학교의 기능이 축소된 상황에서 가정 형편으로 인해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한 인터뷰 참여자는 학습 조언을 받을 곳이 부족하여 공부에 어려움을 겪었고,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들이는데 꽤 긴 시간이 걸렸다고 털어놓기도 하였다. 반면, 사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층의 학생들은 필요한 공부를 이어가고 교육 지원을 받기에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이로 인해 생긴 코로나19 시기의 교육격차를 보다 적극적인 맞춤형 교육 상담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다만,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은 교원 업무 과중의 현실 속에서 위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지적하며, 맞춤형 교육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의 업무 경감 및 전문 인력 확충이 필수적임을 짚었다. 개인 상담을 요청하기 “미안할 정도로 바쁘신”(학생08) 선생님들이 학업 상담까지 해주시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전자기기를 익히고, 수업을 녹화하여 업로드하고,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전화를 걸고, 학생들의 자가진단을 체크하느라 교사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학업 상담을 하는 인력이 진정성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열린 태도를 가진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고려사항도 제안되었다. 포커스 그룹 참여자들은 학교마다 배치된 위클래스 상

담 인력에 대해 돌아보며 맞춤형 교육 상담자들이 학업에 대한 격차를 학생 개인의 문제로 전가하지 않고, 서로 다른 출발선에 놓인 학생들이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교육격차를 경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상담해주기를 바랐다.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정책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포커스 그룹에서는 논의되지 못했으나, 이후 연구팀은 2020년 10월-2021년 1월 사이 교육부 주관으로 고교생 맞춤형 학습지도가 진행된 적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남궁양숙, 2021a).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일반고 중하위권 학생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석교사 등 430여 명이 학습상담가(컨설턴트)로 참여하여 온·오프라인 융합형 1:1 방식으로 심리·정서, 진로·진학, 학습법, 과목별 학습 분야에 대해 총 5회 상담 지도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 결손 및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학습 컨설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남궁양숙, 2021a). 해당 프로그램은 한정된 횟수로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가 학생들의 학습, 심리, 정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하여 제작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상담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기조로 다양한 수업방식 및 과목을 통해 배움의 과정 내실화

인터뷰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토론형, 프로젝트형, 실험 수업 등을 하지 못하며 선생님과 의견을 나누거나, 학생들과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축소된 것을 아쉬워하였다. 학생 간 대화를 최소화해야 하고, 자리 배치마저 학생들의 책상이 모두 거리를 두고 칠판을 보는 형태로 일원화된 코로나19 시기 교실에서는 교수자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주입식 교육만 가능하였다. 줌에서 소그룹 기능을 활용해 소규모 토론을 진행하였다는 학생의 사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토론, 실험 수업을 하지 못해 학생과 선생님 모두 아쉬움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또한 프로젝트 기반 수행평가 등이 축소되어 학생들의 창의적 학업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적어지기도 하였다.

주입식 시험 중심 교육은 지식 전달에만 그치기에 학생들이 모두 지식을 이해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뿐더러 다양한 사고 및 경험을 통한 배움을 구현해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방적인 수업보다,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기조로 배움의 과정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 학습 속

도에 맞는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 수업방식 중 개별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사02은 이러한 개별화 교육과정을 통해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 교육, 주입식이 아닌 팀별 활동 및 프로젝트 중심 교수법 등을 통한 학생 중심 교육, 학습자에게 맞는 교육을 구현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개인별로 자신의 학습 속도를 고려한 교육을 받는다면, 하나의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평가한 결과에서의 격차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김위정, 2020).

학생 인터뷰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공부해보는 개별화 교육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인터뷰 참여자 중에서는 이미 고교학점제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학교에 재학하며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있는 학생도 있었으며, 자신의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 수업을 근처 다른 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거점학교 제도를 통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해당 학생들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경험에 만족하며, 학생들이 듣고 싶어 하는 수업이 폐강되지 않도록 주변 학교와의 연계 등을 강화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자신이 꿈꾸는 교육의 모습으로 다양한 과목 중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제도를 꿈꾸는 학생도 있었고, 프로젝트형 수업, 토론형 수업, 강의식 수업 등 다양한 교수방식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바탕으로 배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학생05는 개별화 교육을 진행한다면 현재 일부 특목고에 편중되어 교육격차를 야기하는 심화 과목 교육과정 등을 보다 다양한 학생들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다만 고교학점제 시범학교에 근무 중인 한 교사는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기에는 아직 교원 확보 및 준비 등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개별화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은 내용과 자신에게 맞는 진도를 설정하여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지 파악하여 그에 맞게 학습 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인터뷰 참여자들은 스스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인지하고,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학습에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와 관련해서도 학생들이 자신이 격차를 겪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된다면 보다 빨리 격차의 발생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자신이 주도하여 학습 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학생들이 자신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하여 원하는 배움의 과정을 형성해나갈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한 참여자는 주변에 공부 외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러한 친구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심도 있게 탐구할 기회가 부재하다는 점을 짚으며 보다 다양한 배움을 포괄한 교육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별화 교육은 국어, 영어, 수학 등 기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 외에도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를 탐구해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의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라는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향성을 기반으로 2025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의 시장화를 촉진한다는 비판과 입시 중심 교육하에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교육공동체넷, 2021), 개별화 교육이라는 기조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실현해나갈지에 대해서는 꾸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7) 학생 자치, 동아리 등 수업 외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접근성 확보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은 자치 활동, 수학여행, 동아리 등 비교과 활동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학교의 기능이 축소되었고,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 등을 기획, 참여하며 배울 수 있는 사회참여역량 등을 습득하지 못하였다. 비교과 교육 활동의 부재는 학생들의 사회성과 공동체 의식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지식 전달뿐 아니라 돌봄, 연결의 공간으로서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받는 학업적 영향뿐 아니라 감정적, 정서적 영향도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김유리, 2021), 더불어 살아가고 서로 관계 맺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부재하다는 것은 학생들의 삶과 정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08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 번뿐인 고등학교에서의 시간들이 단조롭게 채워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분명 공부 말고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소양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된 점이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학생08

지식으로만 축소된 코로나19 시기 학교의 역할에 대해, 교사03 또한 교육청 및 교원들이 코로나19 초기에는 당장 원격 수업 시행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기에 바빴지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나서는 학생 자치 등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학교에서 거의 시행되

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겼다고 회고했다.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들을 습득하지 못하며 코로나19 시기 학교를 다닌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경험, 역량, 가치에서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학교는 학습 외에도 다양한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작동해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학업에서의 격차뿐 아니라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교육 불평등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Levinson, 2020).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학교의 역할에 특히 주목해보았을 때, 학생 자치는 재난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사 결정을 돕고, 코로나19 시기 교육격차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인터뷰 당시 전교회장을 지내고 있던 학생01은 코로나 19 시기 학교 운영 지침 등에 대해 학생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많으나, 학생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 학생 자치제도의 한계를 언급했다. 방역을 위해 학교 측이 학생 자치를 위해 편성되어 있던 학생 참여 예산을 상의 없이 사용하여, 학생 자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도 있었다. 학생 자치가 강화되어 있었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함께 대안을 고민하고,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에 대해 학교와 논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상상한다.

포커스 그룹에서는 형식적 방역으로 인한 비교과 활동 축소에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도 제기되었다. 그간 인터뷰에서는 여러 참여자들이 전면등교 시행에 대해 확진자 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불안하다는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시점에 진행된 포커스 그룹에서도 방역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이 다시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등교하며 완전한 방역이 이미 어려워진 상황에서 동아리, 비교과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 또한 제기되었다. 위드 코로나 시행이 시작되며 방역과 다양한 학교 경험의 제공 사이 고민하며 적합한 선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대면으로도 학생 자치, 비교과 활동 등을 보다 풍부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나가야 한다. 이에 대해 교사03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생 자치를 실현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비교과 활동을 시행한 사례로부터 배우고 학교에서는 이러한 학생주도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그 외에도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들은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또는 지역별 연합 동아리 제도 등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안했으며, 학생들이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비교과 활동을 부수적인 것이

나,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다양한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교육 경험으로 바라보는 장기적인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8)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담론 및 구조의 방향 고민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및 교육청에서는 기기 지원으로 대표되는 단기적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펼쳤다. 그러나 단기적인 정책은 코로나19 시기에 누적된 학습 결손과 관계의 단절, 그리고 이러한 지점들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간과한다. 이에 대해서 학생08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교육격차라는 건 코로나 시기 당장에도 발생을 하지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 몇 년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와 코로나 이후 시기로 나누어서 맞춤형 정책을 펼치는 그런 초점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학생08

이제는 교육의 전환을 고민하며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교육격차를 고민하고, 해소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기초학력 프로그램, 교육과정 설계 등에 있어서 코로나19 시기의 교육격차의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이면에 내재된 구조적 불평등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참여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며,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질문하였다. 학생들은 입시 중심 교육, 발전 중심 사회에서의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생기고 있다고 짚었다. 학생11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잘 대변하고 있다.

「교육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선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급성장을 이루어내서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발전을 다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 하기는 하는데. 어느 구역은 IT산업은 이쪽에서는 중심이 되어있고 어느 지역은 (다른 분야)에 중심이 되어 있어 하고, 대학교에서 막 서울대가 다 먹었잖아요. 서울대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좋아하는데 (강점을) 하나씩 쥐야 되어요. 모든 대학에. 우리 대학은 이쪽이 강점이야 이걸 하고 싶으면 우리 대학에 와라

이런 식으로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긴 하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하고, 모든 대학을 전국 각지에 고르게 분포를 시킨 다음에 대학마다 강점을 하나씩 주고, 또 이 배운 강점을 가지고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내가 배운 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만들어져야 좀 세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교육격차도 그런 데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목표를 보고 그 목표를 위해 과정을 만들었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나오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학생11

목표를 위한 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교육격차와 같은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진단에는 입시, 학벌, 발전 등의 명목 하에 구조적 불평등과 양극화, 격차가 용인되는 현실이 담겨있는 듯하다. 결과에만 연연하며 배움의 과정을 고민하지 않는 우리 교육의 모습과 겹쳐보기도 한다. 교육격차의 뿌리를 뽑으려면 구조적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양극화라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비판과 고민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시기 교육에 대한 고민이 결국 입시 중심의 경쟁 교육의 문제점과 보다 정의로운 교육에 대한 비전으로 이어지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인디고서원, 2021).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했을 때, 기존 체제 내 해소책의 한계도 인식할 수 있다. 교육 기회의 평등성만을 주장하며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만으로 교육격차 정책을 일갈하는 것은 이러한 격차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간과한다. 김위정(2020)이 주장한 바와 같이 “성(性), 인종, 계급에 따른 차별, 지배와 특권이 우리 사회에 존속되는 한 교육 불평등은 재생산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교육격차를 뿌리 뽑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김위정(2020)은 학생들이 불평등한 현실을 수용하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회 정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사회 정의 교육은 학생들이 현존하는 사회 규범에 질문을 던지고, 기존 담론과 가치를 재검토하며,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달효, 2014). 사회 부정의와 불평등, 격차를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변화를 위한 행동을 실천할 때, 보다 정의로운 교육과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06.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사회참여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교육격차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시기 교육격차 동향과 정책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관련 정책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교육청의 블렌디드 러닝 내실화 정책과 교육 취약계층 학생 지원정책, 그리고 서울시의 서울런 정책이었다. 이후, 학생들의 경험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교육 현장의 고충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내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3명을 인터뷰하여 교사들이 경험한 코로나19 시기의 학교와 교육격차, 그리고 이러한 격차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다음, 서울시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12명을 인터뷰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 인터뷰 참여자 6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보완책을 다듬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 중기, 장기를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 제안을 도출하였다. 제안책은 1) 교육청의 지원정책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개선, 2) 학생들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 구축, 3) 교육비 지원 개선, 4)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생 중심 다양한 수업 콘텐츠 및 온·오프라인 교수방식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5)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상담 실시, 6)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기조로 다양한 수업방식 및 과목을 통해 배움의 과정 내실화, 7) 학생 자치, 동아리 등 수업 외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접근성 확보, 8)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담론 및 구조의 방향 고민으로 총 8가지이다. 기존 교육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웠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를 반영한 정책안을 제시한 것이 본 연구의 특징이다.

코로나19를 겪은 청소년 세대는 스스로를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으며,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고, 공동체 의식의 와해를 겪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렇지만 비슷한 고난이 생겼을 때 딛고 나갈 수 있는 세대이며, 코로나19 시기 대두된 문제들을 고려하여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대라고도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고, “나를 잃지 않고 나답게 살겠다”(학생09)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세대가 앞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교육의 모습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교육격차와 정책 방안에 대해 당당하게, 사려 깊게, 통찰력 넘치게 이야기하던 참여자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비판하고, 만들어갈 교육의 모습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계보경 외, 2020,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기초 통계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교육공동체넷, 「오늘의 교육 2021년 9·10월호 Vol.64」, 교육공동체넷.
-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권 3호, pp.1~27.
- 김달호, 2014, “사회정의를 위한 교육의 이론적 고찰”, 「수산해양연구」, 26권 3호, pp.474~484.
- 김민권, “고등학생의 영어과 거꾸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교육학과 석사논문, 2019년 2월,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151141/1/000000155907.pdf>.
- 김수혜·손수경·임혜정·노연경, 2020, “OECD 형평성 지표로 본 교육격차 추이: 서울교육중단연구 1~9차 연도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도시연구」, 21권 2호, pp.127~144, 서울연구원.
- 김양분 외, 2010, 「학력격차의 변화 추이 및 해소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철, 2004, 「서울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와 해소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김유리, 2021, “코로나19 전후 학생들의 심리와 정서 변화: 서울학생들을 중심으로”, 「서울교육 이슈페이퍼」, 32호, pp.1~48.
- 김위정, 2020, “코로나19가 던진 교육격차 문제와 과제”, 서울교육 241호.
- 김현경, 2015, “청소년 참여실행연구(YPAR)의 사회과 수업 적용의 실제”, 「사회과교육」, 54권 3호, pp.87~103.
- 김효원 외, 2020, 「코로나19가 교사의 수업, 학생의 학습 및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 :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서울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 김희삼, 2009, “교육격차와 사회통합”, 「보건복지포럼」, 39-46.
- 남채봉, 2013,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다”: 청소년 참여 실행 연구(Youth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가 다문화 시대 비판 시민 교육에 지니는 의의”, 「시민교육연구」, 45권 2호, pp.31~65.
- 류방관·김성식, 2006, 「교육격차:가정 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민주화운동사업기념회, 2020, 「[자료집]제11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민주화운동사업기념회.

- 박경호, 2018, “교육격차의 이해를 통한 개선방향 탐색”, 『교육비평』, 41권, pp.145~174.
- 박명수, 2014, “영어교육격차의 원인 분석”, 『외국학연구』, 27권, pp.35~60.
- 박미희, 2020, “코로나19 시대의 교육격차 실태와 교육의 과제”, 『교육사회학연구』, 30권 4호, pp.113~145.
- 박주호·백종면, 2019, “교육격차 실증연구의 체계적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7권 1호, pp.213~238.
- 박현정 외, 2013, “서울시 초·중등교육의 교육격차 구조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1권 4호, pp.149~174.
- 백병부·김정숙, 2014, “학교내 사회자본이 학업성취 격차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2권 1호, pp.221~249.
- 성기선, 2010, “중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가정배경의 영향력 변화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0권 3호, pp.88~103.
- 신소영, 2021, “코로나19 학력격차 실태와 개선 방안”, 『코로나19 학력격차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대전광역시의회.
- 신혜숙·민병철, 2017, “가정배경, 부모 교육관여 및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교육문화연구』, 23권 6호, pp.535~556.
- 유한구·이혜숙·윤여선, 2011,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분석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정보연구원.
- 이상윤, 2010,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이중섭·이용교, 2009,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국가족복지학』, 26권, pp.159~192.
- 이혜영·강태중·김수영, 2004,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학교와 타 지역 학교의 교육격차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혜정 외, 2019, 『IB를 말한다: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위한 제안』, 창비교육.
- 인디고서원, 2021,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청소년이 쓴 코로나19 교육 보고서』, 공리출판.
- 임다희·권기현, 2013, “인적자본동기부여교육복지 이론을 통한 교육격차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순서화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권 1호, pp.185~213.
- 임소현 외, 202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0)』, 한국교육개발원.
- 장미혜, 2002, “사회계층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36권 4호, pp.223~251.
- 정송·안영은, 2021, “코로나 19 전후 학교 내 학력격차 실태 분석: 서울 소재 중학교 학업성취등급 분포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1권, pp.53~74.
- 정용주 외, 2020,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포스트’가 아닌 ‘지금’ 코로나 시대의 교육』, 교육공동체넷.

- 정재훈·김경민, 2014, “교육의 공간 불평등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권 2호, pp.385~401.
- 채희주·이진숙, 2020, “Z 세대의 SNS 마켓에서의 소비자사회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9권 2호, pp.199~216.
- 추경모, 2012, “교육의 지역적 격차에 관한 연구: 중학교교육현황을 사례로”, 『한국지리학회지』, 1권 1호, pp.33~52.
- Breen, R. L., 2006, “A Practical Guide to Focus-Group Research”,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0(3), pp.463~475.
- Byun, S. and Kim, K., 2010, “Educational Inequality in South Korea: The Widening Socioeconomic Gap in Student Achievement”, In E. Hannum, H. Park & Y. Butler(Eds.). *Globalization, Changing Demographics, and Educational Challenges in East Asia*. Bingley, UK: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 Cahill, C., Quijada Cerecer, D.A. and Bradley, M., 2010, ““Dreaming of...”: Reflections on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as a Feminist Praxis of Critical Hope”, *Affilia*, 25(4), pp.406~416.
- Cammarota, J., 2017, “Youth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A pedagogy of transformational resistance for critical youth studies”, *Journal for Critical Education Policy Studies*, 15(2), pp.188~213.
- Coleman, J., et al., 196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Davis, D. and Craven, C., 2016, *Feminist Ethnography: Thinking Through Methodologies,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Dolan, T., Christens, B. and Lin, C., 2015, “Combining youth organizing and youth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to strengthen student voice in education reform”, *Teachers College Record*, 117(13), pp.153~170.
- Edwards, R. and Holland, J., 2013, *What is qualitative interviewing?* London, UK: Bloomsbury.
- Ginwright, S. and James, T., 2002, “From Assets to Agents of Change: Social Justice, Organizing, and Youth Development”, *New directions for youth development*, 2002(96), pp.27~46.
- Ginwright, S., 2008, “Collective Radical Imagination: Youth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and the Art of Emancipatory Knowledge”, In J. Cammarota & M. Fine(Eds.). *Revolutionizing Education: Youth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in Motion*(pp. 13~22). New York:

Routledge.

Kim, W. and Woo, J., 2023(forthcoming), "Doing YPAR within Korean cultural contexts: Contending with power dynamics in sunbae-hoobae relationship", In M. Call-Cummings, M. Hauber-Özer & G. Dazzo(Eds.). The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f Critical Participatory Inquiry in Transnational Research Contexts. New York: Routledge.

Levinson, M., 2012, No Citizen Left Behin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Levinson, M. 2020, Educational Ethics During a Pandemic.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Edmond J. Safra Center for Ethics.

May, T., 2011, Social Research: Issues, Methods and Process. Buckingham, UK: Open University Press.

Mirra, N., Morrell, E.D., Cain, E., Scorza, D.A. and Ford, A., 2013, "Educating for a critical democracy: Civic participation reimagined in the Council of Youth Research", Democracy and Education, 21(1), pp.3~10.

Nam, C., 2012, "Implications of Community Activism among Urban Minority Young People for Education for Engaged and Critical Citizen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Progressive Education, 8(3), pp.62~76.

Sirin, S.R., 2005, "Socioeconomic Status and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tic Review of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5(3), pp.417~453.

Warren, C.A. and Marciano, J.E., 2018, "Activating Student Voice Through Youth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YPAR): Policy-making that Strengthens Urban Education Reform",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31(8), pp.684~707.

Williams, A., and Katz, L., 2001, "The Use of Focus Group Methodology in Education: S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IEJLL: International Electronic Journal for Leadership in Learning 5(3), pp.1~10.

<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miri.html?fn=e19a813612669830201933&rs=/assist/synap/preview> (통계청 2020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List.action?bbsBean.bbsCd=465> (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 등교지원 학교 대응 지침).

<https://enews.sen.go.kr> (서울교육소식 사이트).

<https://www.moe.go.kr/sub/infoRenew.do?m=031301&page=031301&s=moe> (교육부 코로나19 등교·원격수업).

<https://blog.naver.com/seouledu2012/222038031788> (서울시교육청 블로그 원격수업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https://blog.naver.com/seouledu2012/222064786143> (서울시교육청 블로그 교육격차 해소방안 발표).

<https://m.blog.naver.com/seouledu2012/221886913298> (서울시교육청 블로그 서울시교육청-서울시-자치구, 학생 안전 지원대책 공동 대응 6대 합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59573&cid=42346&categoryId=42346>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용어사전).

고유선, 2020. 6. 9., “시민 62% “원격수업으로 부모 경제력 따른 교육격차 커져”,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9059700530>.

구자윤, 2021. 9. 2., “서울런 둘러싼 논란, 사교육 업계에까지 불뚱”,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9021413536361>.

김경민·김지아, 2021. 1. 5., “[코로나 임팩트]“코로나 끝나기만 기다린 교실, 교육격차 더 키웠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61960#home>.

김미란, 2021. 6. 30., “[코로나19와 교육 사각지대①] 원격수업 17개월과 방치된 아이들”, 더스coop,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30>.

김보연, 2021. 11. 4., “저소득 가정 초중고 교육비 지원이 2022년 3월부터 확대됩니다!”, 서울시교육청, <https://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130&bbsBean.bbsSeq=1358>.

김지은, 2021. 7. 5., “교육단체들 “오세훈 ‘서울런’, 교육 효과 낮고 공공성 훼손”,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02195.html>.

김혜리, 2021. 8. 9., “코로나19로 갈 곳 없는 가정밖 청소년 “오늘도 건물 옥상에서 자야 해요”,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090600011#c2b>.

남궁민, 2021. 2. 16., “국민 64% “교육격차 커졌다”...이유는 ‘학생·교사 소통부족”,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92970#home>.

남궁양숙, 2021a. 2. 22., “학교 일상으로의 회복 지원, “선생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362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4&s=moe&m=020402&opType=N>.

남궁양숙, 2021b. 6. 17., “2학기 등교학대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474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박근희, 2020. 8. 19., “서울시교육청, 교육격차 해소 방안 발표”,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2557>

박선미, 2020. 12. 19., “코로나 시대, 서울교육에 바란다”, 서울교육소식,
<https://enews.sen.go.kr/news/view.do?bbsSn=170342&step1=3&step2=1#none>.

신성현, 2021. 3. 17., “[기획] 코로나 시대, 학교의 역할 및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리서치,
<https://hrcopinion.co.kr/archives/17834>.

심혜진, 2021. 2. 24., “2021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신학기 대비 학교 운영 방안”, 서울교육소식,
<https://enews.sen.go.kr/news/view.do?bbsSn=170756#none>.

오창민, 2020. 5. 20., “소득 낮을수록 학교 의존도 높아…교육 넘어 돌봄 고민할 때”,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005200600045#c2b>.

이정연, 2021. 2. 17., “조사로 본 코로나19와 교육격차, 그 실태와 과제”, 교육정보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10103&pageId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29937>.

정은선, 2020. 8. 19., “서울형 블렌디드 러닝으로 학습효과 높이고 ↑ 취약층 교육지원 강화해 격차 줄인다 ↓”, 서울교육소식,
<https://enews.sen.go.kr/news/view.do?bbsSn=168885&step1=3&step2=1>.

지성배, 2017. 7. 3., “[진단과 대안]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의 교육적 의의와 한계”, 에듀인뉴스,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31>.

최세민, 2021. 2. 8., “중1 고1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서울교육소식,
<https://enews.sen.go.kr/news/view.do?bbsSn=170637&step1=3&step2=1#none>.

최원형, 2021. 2. 3., “코로나로 실직·폐업가구 대학생에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81568.html#csidx8e8d60c1ec23f93ac5628b3cbdc623e>.

한민선, 2021. 9. 22.,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마을학교 만든다..“교육결손 회복””, 머니투데이,
<https://news.v.daum.net/v/20210922090004645>.

작은연구 좋은서울 21-10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청소년의 시각을 중심으로

발행인 유기영

발행일 2021년 11월 9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